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6월 13일(음력 4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 632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누구나 어디서나 가능한…

‘108배’가 뜬다

20~30대 남성에 큰 호응
‘절 수행 입문’ 3쇄 발간도

▲불교계에 불고 있는 108배 바람=이아무개씨. 그는 소위 ‘견지동 사람’이다. 대학 졸업 후 불교계에 투신한 지 10년이 넘었다. 몸과 마음은 늘 부처님 가까이 있었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꾸준히 수행하지 못해 늘 가슴 한 쪽이 무거웠다. 그러던 그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5월 8일 방송된 ‘SBS 스페셜-0.2평의 기적, 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서다.

그는 매일 저녁 집에서 108배를 하기 시작했다. 수행이 주목적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평소 그를 괴롭혔던 어깨와 허리 통증도 완화시키고 싶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나오는 배도 좀 집어넣고 싶었다. 한 달여 가까이 된 지금 허리와 어깨 통증이 한결 감소한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력이 붙어 “하면 할수록 괜찮은 수행”이라고 말한다.

‘SBS 스페셜-0.2평의 기적, 절하는 사람들’ 방송 후 불교계에 108배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바람은 조용하지만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의령 유학사에서는 최근 ‘거사 108예참안거’ 결사가 조직됐다. 108명의 거사가 5월 20일부터 하안거 해제일까지 매일 가정에서 108예참 기도를 하는 것이다.

108배 바람은 출판계에도 불어 조계종 출판사가 펴낸 〈절 수행 입문〉의 경우 3쇄를 찍었다. 불황인 불교계 출판계에서, 그것도 수행과 관련한 딱딱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3쇄를 찍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SBS 방송에 출연한 청견 스님(서울 법왕정사 주지)는 “이전에는 주로 노보살님들이 절을 많이 했는데, 방송 이후 20~30대 남성 직장인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수행 108배. 불교계를 뛰어넘어 범국민적, 범세계적인 수행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8배할 때 주의할 점은=〈절 수행 입문〉에 따르면, 절 수행은 가까운 사찰이나 포교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집이나 사무실도 무방하다. 다만 집에서 절을 할 경우 불상이나 불화를 모셔 놓고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절은 몸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수행이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하다. 만약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피로가 오고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절을 할 때 숫자와 시간에 얽매여 헐떡거리며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 수행도 다른 수행과 마찬가지로 의식과 절차를 마련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에서 할 때는 주변 정돈→향 피우고 마음 다지기→삼귀의례→참회발원→절 수행→좌선→회향발원→사홍서원 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절 수행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두를 참구하거나, 염불, 주력, 사경, 위빠사나 등과 병행하면 훨씬 효과가 높다.

대표적인 방법은 △절을 하면서 마음으로 죄업을 참회하거나 △절을 하면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염불을 하거나 △절을 하면서 사경을 하거나 △108배나 300배 1080배나 3000배 등 절을 하면서 수를 헤아리는 방법 △절을 하면서 화두를 참구하거나 △절을 하면서 심신을 관하는 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절을 하면서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의 경우 반드시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명연 스님은 “절을 한 후 15분 이상 좌선에 들어 호흡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개성 영통사에서 손잡은 남·북 불교

천태종 개성 영통사 순례에 참가한 불자들이 6월 8일 영통사 복원 3주년 기념 남북 공동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오른쪽에서 3번째)과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이 손을 잡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개성=김원우 기자

禪 수행자 필독서 ‘벽암록’ 첫 완역

민족사, 12년 만에 5권 한질 출간…속어 해석 낱말사전 간행도

선종의 종문제일서(宗門第一書)로 불리는 〈벽암록(碧巖錄)〉이 처음으로 완역됐다. (사진)

〈벽암록〉은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이 〈조당집〉 〈전등록〉 등에서 옛 공안 100개를 가려뽑아 송을 붙여 펴낸 〈설두송고백칙(雪竇頌古百則)〉에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이 수시 착어 평창을 붙여 완성한 선종의 대표적인 저서다. 선 수행자들에게는 필독서로 통하는 〈벽암록〉은 ‘명성’에 비해 활발한 번역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구조가 복잡하고 1000년 전 선사들의 활발한 기상을 담은 육성을 오늘의 언어로 옮기는 일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벽암록〉은 수시나 본칙을 중심으로 번역하는 정도였으며 판본의 대조 작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사(대표 윤재승)가 12년간의 노력 끝에 5권 한질로 세상에 내놓은 〈벽암록〉은 7개의 칙들을 석지현 스님이 낱낱이 번역했다. 〈벽암록〉의 7칙은 수시(垂示), 본칙(本則), 본칙의 착어(著語), 본칙의 평창(評唱), 송(頌), 송의 착어, 송의 평창 등이다. 이 같은 7칙을 전부 번역한 것은 〈벽암록〉의 정신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간간 판본에 대한 연구와 대조 작업도 그리 활발하지 않았으며 이본(異本)간의 대조를 통한 번역도 거의 없었다. 〈벽암록〉의 판본은 대개 4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벽암록〉의 완성자인 원오극근 스님이 제자들의 요청으로 3번에 걸쳐 강의한 강의록을 중심으로 판본이 형성된다. 즉 성도의 소각사(昭覺寺)에서 한 강의노트를 토대로 만들어진 판본이 첫 번째로 ‘촉본(蜀本)’ 또는 ‘천본(川本)’이라 하고 이후 2번의 강의록들이 ‘복본(福本)’과 ‘일야본(一夜本)’으로 명명됐다. 그러나 이 세 개의 판본은 원오 스님의 제자 대혜종고 스님에 의해 불태워 진다. 그로부터 190년 뒤인 원나라 초에 장명원이라는 거사에 의해 복간된다. 이 복간본이 ‘장본(張本)’으로 오늘날 전해지는 판본이다.

〈3면에서 계속〉

I love Buddha / 수행의 시작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신문사 통장 예금주가 (주)에이치비엠씨로 변경되었습니다

선 무 도
선체조/선요가/선호흡/선기공/선무술
선무도 전국지원
·경주 총본원 골굴사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05 www.sunmudo.com
·서울 : 종로 02)763-2980
서초 02)581-6521 방배 02)599-5554
송파 02)3431-488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7
·인천 032)541-6301 일산 031)924-5555
·안산 031)475-2600 청주 043)285-1732
·대구 053)525-0718 포항 054)275-6069
·울산 052)276-6271 양산 055)382-5074
·부산 :
보림 051)524-1600 정관 051)464-1380
금정 051)515-8323 서면 051)818-0166
국외지원
·U.S.A L.A. 213-487-5377
·Canada Toronto 941-656-9642
·Austria Salzburg 06-215-5394
·France Toulouse 05-61-08-1010
(사)세계선무도협회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홍콩 반환 10주년 기념종을 우리의 손으로
-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의 범종 -
홍콩 반환 10주년 기념종 성공리에 완성
한국 최초·최대의 범종제작사로 5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가 오는 6월말 홍콩 반환 10주년을 기념하여 타종될 홍콩 범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범종은 한국 전통 양식이 아닌 중국 양식으로 제작된 국내 최초의 범종으로 완성되기까지 디자인에서부터 두께 설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성공리에 주조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사 전매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문양이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소리 또한 기존의 중국 범종보다 우수하여 발주처인 홍콩불교연합회로부터도 매우 훌륭하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우수한 범종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성종사가 되겠습니다.
- 성종사 임직원 일동 -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sungjongsa@hotmail.com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대한민국 명장)

홍콩불교문화산업, 석가모니像 기증

조계종 등 5곳에 모셔



우따룽(吳達鎔) 홍콩불교문화산업 상무부주석 등은 6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석가모니像(금불상)을 기증했다. (사진)

이날 우따룽 상무부주석은 "홍콩불교문화산업은 자비와 화해를 전파하기 위해 석가모니상(금불상) 108불(佛)을 세계각국에 봉헌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과 몽골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봉헌의식을 봉행한다"고 소개했다.

홍콩불교문화산업측은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와 석가모니불 5점을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서울 봉은사, 동국대학교에 기증하며, 김교각 지장왕보살 입상 20존도 조계종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동국대 이사장 등에게 증정한다.

지관 스님은 "홍콩불교 거사들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며 여러 나라에 불교를 전파해 경의를 표한다"며 "기증한 불상은 불교중앙박물관에 잘 모셔서 불자 뿐 아니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남동우 기자**

혜자 스님 유엔본부 방문

세계빈민구호 기금 전달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5월 31일 미국 유엔본부를 방문,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빈민구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세계빈민구호 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만남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사)한국언론인연합회(회장 서정우)가 지난해 12월 선정 시상한 역대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자들과 한국 언론발전에 기여한 각계 인사 42명을 초청해 이뤄졌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초청 환영사에서 "세계 빈민국가를 돕는데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계빈민국 돕기 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영배 기자**

조계종 교육원 전산교육 실시

8월 7일부터 4일간 동국大서

조계종 교육원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에서 제10회 전산교육을 실시한다.

전산교육은 정보화시대에 종무행정 능률을 높이고 스님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초급은 컴퓨터 기초, 한글 기초, 인터넷 기초 등을, 중급은 한글 활용, 오피스 활용, 인터넷 활용, 홈페이지 활용 등을 배운다. 컴퓨터의 작동원리, CD굽기, MP3 · 디지털카메라 활용은 공통이다.

접수는 8월 3일까지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기간 중 공양이 제공되며, 경주캠퍼스의 경우 숙소가 유료로 제공된다. 교육비는 1인당 12만원.

전산교육을 이수한 스님 중 현직 사찰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경우 올해 본 · 말사주지연수를 대체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교육원에서 실시한 40시간 이상의 직능교육을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02)2011-1807~9 **남동우 기자**

▶ 바로 잡습니다

본지 631호 5면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의 결제법어 중 첫 번째 게송 둘째 줄은 '농부곽(鑊)두기진풍'이며 두 번째 게송 첫줄은 '퇴비상감과'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조계종 새 문화국장 수인 스님



조계종 총무원 새 문화국장에 수인 스님(사진)이 6월 5일 임명됐다. 1985년 사미니계, 88년 구족계를 수지한 수인 스님은 93년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남동우 기자**

도의 국사 다례재 16일 봉행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가 6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불교 전통의식으로 치러지는 다례재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원로의원스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행장소개, 추모사, 청법게, 입정, 법어, 종사영반, 헌화 등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산사로 떠나는 여름휴가 어때요?

피서(避暑). 더위를 피하는 계절이 다가온다. 산으로 바다로, 또는 해외로 더위를 피하러 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더 큰 더위가 버티고 있다. 더위를 제대로 피하기 위해 이번 여름 산사로 떠나보자. 템플스테이를 통해 나를 괴롭히는 더위의 정체를 알아보자. 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더위가 저 멀리 달아날지도 모른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6~8월간 템플스테이 일정

지역	사찰명	전화	프로그램	날짜	대상
서울	조계사	02-732-5292	템플라이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외국인
서울	묘각사	02-763-3109	내마음 내려놓기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누구나
서울	길상사	02-3672-5945	여름 수련회	7월 22일~25일	중고등학생
				7월 29일~8월 1일	일반인
				8월 3일~5일	일반인
				8월 10일~12일	어린이
			주말 선수련회	매월 넷째주 주말(토, 일)	성인
고양	흥국사	02-381-7970	청소년 파라미타 수련회	7월 28일~30일	중고등학생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7월 22일~24일	초등학생
			주말 템플스테이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가족, 일반인
			일반인 수련회	8월 5일~7일	성인
여주	신륵사	031-885-2505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7월 29일~31일	어린이
			가족 템플스테이	8월 24일~25일	가족
			성인 선 수련회	7월 22일~25일	성인
			청소년 수련회	8월 1일~3일	청소년
			가족 수련회	8월 6일~8일	
강화	강화국제연등선원	032-937-7033	청소년 영어 캠프	1차: 7월 23일~26일 2차: 7월 30일~8월 2일 3차: 8월 6일~9일 4차: 8월 13일~16일	초, 중, 고등부
강화	전등사	032-937-0125	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	1차: 7월 2일~5일 2차: 7월 9일~12일 3차: 7월 16일~19일 4차: 7월 23일~26일 5차: 7월 30일~8월 2일 6차: 8월 6일~9일 7차: 8월 13일~16일	성인
공주	마곡사	041-841-6226	일반 템플스테이	7월 7일~ 8일	누구나
			선 수련회	7월 14일~17일	누구나
			어린이 수련회	7월 27일~ 29일	초등학생
			청소년 수련회	8월 3일~5일	중고등학생
			가족 템플스테이	7월 27일~28일	소년소녀가장
			일반 템플스테이	8월 25일~26일	누구나
공주	영평사	041-857-1854	여름 불교학교	7월 28일~30일	누구나
			백련축제	8월 3일~5일	누구나
			일반 템플스테이	8월 6일~7일	성인
서산	부석사	041-662-3824	부석사 템플스테이	매주 주말 (매월 3째주 탐조템플스테이)	누구나
			어린이 한문학당	7월 말~8월 초	초등학교
예산	수덕사	041-337-6565	수덕사 여름 선수련회	7월 중순~8월 예정	
김제	금산사	063-548-4441	禪-나를 깨치다 7기	1차: 7월 14일~17일 2차: 8월 3일~7일 3차: 8월 13일~19일	성인
			어린이 영어캠프	7월 27일~29일	초등학생
				8월 3일~6일	성인
			산사체험	8월 24일~25일	누구나
남원	실상사	063-636-3031	실상사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누구나
			불교문화체험형 '산책'	1차: 6월 16일~17일 2차: 7월 14일~15일	누구나
			'지리산의 아침'	6월 29일~7월 1일	누구나
			회림원 스님과 함께하는 단식좌선	1차: 7월 26일~29일 2차: 8월 3일~5일 3차: 8월 10일~12일 4차: 8월 17일~19일	누구나
부안	내소사	063-583-3035	(건강증진형)트레킹 템플스테이	5월부터매주 주말(토, 일)	누구나
			생태체험형	매주 주말(토, 일)	가족대상
해남	미황사	061-533-3521	한문학당	7월 29일~8월 5일 8월 8일~15일	초등학생 25만원
			참사람의 향기 (단기출가수행프로그램)	1차: 6월 16일~23일 2차: 7월 21일~28일 3차: 8월 18일~25일 4차: 9월 15일~22일 5차: 12월 15일~22일	일반인, 학생
			고요한 소리	상시	일반
해남	대흥사	061-535-5775	참선수련회	8월 16일~22일	경험자
			어린이 숲속마을	7월 22일~24일	초등학생
			제2회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	8월 1일~5일	개인, 가족
해남	대흥사	061-535-5775	(개인 휴식형) 새벽숲길로 가는 여름	6월 20일~8월 20일 상시운영	개인 및 단체 누구나
			(가족문화형)가족과 함께하는 숲속마을 템플스테이	1차: 6월 27일~30일 2차: 7월 4일~7일 3차: 7월 11일~14일 4차: 7월 18일~21일 5차: 7월 25일~28일 6차: 8월 8일~11일 7차: 8월 15일~18일	가족대상
구례	화엄사	061-783-7600	(가족문화형)	7월 14일~16일	누구나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7월 22일~25일	어린이
			일반부 여름 수련회	1차: 7월 28일~31일 2차: 8월 3일~6일	성인
			간화선	8월 10일~14일	성인
보성	대원사	061-852-1755	대원사 템플스테이	매주 주말(토, 일)	일반인
화순	불회사	061-337-3440	여름 수련회	7월 중순~8월 20일 경 5주 진행(미정)	성인
순천	송광사	061-755-0107~9	초등학생 여름 수련회	8월 9일~11일	초등생 100명
			성인 및 청소년 여름 수련회	1차: 7월 8일~12일 2차: 7월 15일~19일 3차: 7월 22일~26일 4차: 7월 29일~8월 2일	성인 및 청소년 100명
			중, 고등학생 여름 수련회	8월 5일~7일	중고생 100명
장성	백양사	061-392-7502	고불총림 참사랑수행 템플스테이	7, 8월 중 4회 실시	성인
김천	직지사	054-436-6084	차명상 템플스테이	6월 23일~24일	누구나
			휴식형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개인 및 가족
			청소년 여름수련회	7월 23일~25일	중, 고등생
			어린이 여름수련회	7월 27일~29일	어린이
			일반인 템플스테이	8월~8월 중순까지	성인
경주	골굴사	054-744-1689	선무도 주말 템플스테이	연중 상설, 주말 프로그램 별도 운영	누구나, 외국인
			청소년 화랑 수련회	7월 15일~9월 1일	청소년 200명
경주	기림사	054-744-1701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7월 27일~29일	어린이
			기림사 템플스테이	상시	누구나
합천	해인사	055-934-3110	기초 수행 수련법회	1차: 7월 10일~14일 2차: 7월 17일~21일 3차: 7월 24일~28일 4차: 7월 31일~8월4일	성인
			중고등부 수련법회	8월 7일~8월 10일	중, 고등생
			초등부 수련법회	8월 14일~8월 16일	초등학생
양산	통도사	055-382-7182	일반인 수련회	1차: 7월 12일~15일 2차: 7월 19일~22일 3차: 7월 26일~29일	성인
			청소년 수련회	8월 4일~6일	중등부
				8월 8일~10일	고등부
부산	홍법사	051-508-0345	놀토 학교 프로그램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초등학생
			놀토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	6월 23일~24일	초등학생
			어린이 여름 수련회	7월 말~8월 초	초등학생
부산	범어사	051-508-3122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7월 29~31일 8월 2일~5일 8월 10~12일: 중고등부	초, 중, 고등학생
			어린이 불교학교	7월 25일~29일 7월 29일~31일	어린이
			여름 수련회	7월 20일~22일	누구나
원주	구룡사	033-732-4800	구룡사 수련회	1차: 7월 11일~14일 2차: 7월 25일~28일 3차: 8월 8일~11일 4차: 8월 22일~25일	성인
동해	삼화사	033-534-7661	삼화사 템플스테이	상시(휴식형), 주말 프로그램	누구나
평창	월정사	033-332-6664	월정사 단기 출가학교	6월 24일	누구나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7월 21일~23일	만6세 이상 13세 이하
			박물관 어린이 수련법회	7월 27일~29일	초등학생
			일반인 여름 수련회	1차: 8월1일~4일 2차: 8월 9일~12일 3차: 8월 15~19일	누구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서울 다-07641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4월 1일부터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기록용 및 소장용,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 활동 홍보 영상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 /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02-2004-8279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4대 종정 고성대종사 추대식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신 일붕 큰스님이 입적하시고 우리 종단과 종도들은 길고 긴 칠흑의 무명 질곡을 방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 불교적이고 반 종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자정(自淨)의 기회를 마련하여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하늘에 달이 밝고 땅 위에 물이 맑으면 맑은 물위에는 밝은 달이 비치고 우리들의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그 곳에는 언제나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듯이 미국 워싱턴 세계중앙선원(World Zen Center) 원장이자 미국 선종대학(American Zen College) 총장이신 고성 대종사를 우리 종단 제4대 종정으로 추대하여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새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부디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수희 동참을 희망합니다.

불기2551(2007). 6.

◆ 일 시 : 2007년 6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세검정 하림각 신관 2층 다이아몬드홀 (02-396-2442)
◆ 연락처 :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02-394~9468/9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4대 종정 추대 봉행위원회 위원장 **현 공**

광활한 대륙의 역사 속으로…

대학생 불자 50여명 中동북지역 기행
25일부터 6일간 '고구려 역사' 탐방

바람직한 동북아 미래상을 만들어갈 주역인 대학생 불자들이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고구려 유적지가 산재한 중국 동북지역을 탐방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용석, 이하 대불련)가 주최하는 'COREA의 고구려 역사를 찾아서' 행사에는 증명법사로 동행하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정무 스님(안성 석남사 회주)을 비롯 대학생 50여명 등 총 6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련 단동 집안 서파 백두산 통화 환인 심양지역 답사를 통해 대불련은 광활한 대륙의 역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고구려 역사를 체험하고, 무한한 자신감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기행 지역은 △고구려의 가장 아름다운 성 백암산 백암성 △백두산 천지 △고산 화원대 △금강대협곡 △5호경계비 △광개토대왕비 및 태황릉 △환도산성 △장군총 △국내성 △졸본성 △비류수 △장군분 △고군분 △고구려 천리장성 △압록강 △여순감옥 △비사성 등이다.

특히 답사기간에는 동국대 윤명철 교수가 '고구려 역사알기' '동북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주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등을 주제로 2차례에 걸쳐 강의를 하고, 토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불련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총 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라는 기획강연회에 참가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정무 스님은 "스스로 업신여기면 종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계와 나눌 것이 있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명철 교수는 "고구려는 주변문화를 흡수하고 용해시켜 지중해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중핵국가가 됐다"며 "고구려가 국가간 조정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이나 문화 경제 등에서 주변국가와 대등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상기해 21세기 우리나라의 모델로 방향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불련 조용석 회장은 "우리 옛 선인들의 사상과 문화의 흐름을 지탱하고 있는 불교, 그 가르침을 이어가는 대학생 불자들이 우리의 옛 영토인 중국 동북지역 답사를 통해 고구려 역사에 머물지 않고 우리 역사 전체를 바로 보는 시각을 갖도록 하겠다"며 "대불련 학생들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닌 시대의 새 주인으로 당당히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구려 역사유적 탐방행사는 불자들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후원계좌 006001-04-140228(국민은행,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법회

서울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은평구청과 공동으로 6월 7일 진관사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참석자들이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1면에서 계속>

번역과 원고 정리에 9년을 바친 석지현 스님은 지금 전하지 않는 '촉본'과 '복본'의 내용을 주석서인 <불이초>와 <종전초> 등을 통해 대조 검토했다. 또 '일야본'은 일본의 선승 도겐(道元, 일본 조동종의 시조)이 송나라 유학 시절 하룻밤에 필사 했다는 책(일본 대승사 소장)으로 전해지다가 1942년 스즈끼 박사의 교정으로 간행됐는데 석지현 스님이 한 질 소장하고 있어 참고했다.

민족사가 3년간의 교정을 거쳐 내놓은 <벽암록>은 속어(당 송 시대 서민들의 언어)에 대한 설명을 곁들임으로써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벽암록>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벽암록 속어 낱말사전>을 따로 묶었다. 한 권의 어록을 위해 별도의 낱말사전이 간행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활구(活句, 반드시 참구해야 할 화두부분)와 사구(死句, 단순히 언어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부분)를 분명하게 나눠 준 점도 돋보인다.

석지현 스님은 "언어로써 언어의 의미를 부숴버린 책이 <벽암록>"이라며 "스승(환성 스님)으로부터 <벽암록>과 선시를 배운 뒤 다른 길을 돌고 돌아 33년 만에 다시 <벽암록>으로 돌아 왔다"고 완역의 소회를 밝혔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오른쪽)이 선응 · 무공 · 승행 스님에 강맥을 전수하고 있다.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 전강식
선응 · 무공 · 승행 스님에 강맥 전수

하동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 전강식이 6월 8일 평창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됐다. 탄허 대종사에게 강맥을 전수받은 통광 스님은 탄허 대종사 탄신재일을 맞아 선응, 무공, 승행 스님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통광 스님은 1959년 사미계, 63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하고 10안거를 성만했다. 스님은 77년 오대산에서 당시 대강백이었던 탄허 스님께 전강을 받아 경허→한암→탄허의 강맥을 이었다.

1991년 사미계, 94년 비구계를 수지한 선응 스님은 통도사 강원과 중앙승가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무공 스님은 1998년 사미계, 2002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쌍계사 강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 중문과를 졸업했다.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96년 사미계, 2002년 비구계를 수지한 승행 스님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쌍계사 강원과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졸업했다.

남동우 기자

"해외의료봉사기금 마련"
경희의료불자회, 음악회 개최

경희의료원불자회(회장 권혁운)는 6월 14일 오후 6시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해외의료봉사 기금마련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경희의료원불자회는 오는 12월 인도 뭄바이 인근의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처에서 1주일간 의료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권혁운 회장은 "수년간의 의료봉사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의료봉사를 계획하게 됐다"며 "불자가수들과 연화사 국악팀의 공연 등으로 꾸려질 음악회에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대한불자가수회, 불교TV의 후원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의 기금은 의료봉사에 쓰일 약품 구입비로 사용된다. 1999년 창립한 경희의료원불자회는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매월 서울 연화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02)958-9616 여수령 기자



충담 스님 열반 9주년 추모 법회

18일 청평 감로사서 개최

'나를 사루어 소신공양을 올린다면 이 나라 분단된 국토가 통일되어 동족상잔의 비극과 굶주리고 병들어 고통 받는 이들이 없어지고 불교계가 화합되어 흥할 것이다.'

1998년 6월 27일 세 가지 대원력을 담은 열반게를 남긴 뒤 주석처였던 서울 승가사를 떠나 청평 감로사 미륵부처님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섶을 모아 소신공양을 결행한 충담 스님(前 태고종 승정).

불교계의 내분과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란이 컸던 시기에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은 한국불교 역사상 드문 일이어서 우리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서울 승가사(주지 지성)는 6월 18일 오후 1시 청평 감로사에서 충담 스님 열반 9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한다.

지성 스님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들이 극복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모법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031) 584-0117 김원우 기자

종교적 관점 남녀평등 학술포럼

남 · 여 평등과 호주제도를 각 종교 경전에 입각해 사회정서 진작 방안 등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협의회는 6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 18층 가야금홀에서 '소속 경전에서 본 남 · 여 평등 호주제도와 남 · 여 평등'이란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학술포럼은 연정열 한국명예교수회장의 사회로 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8개 종교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불교계에서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축사하며,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장주 스님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무비 스님 '書狀 대강좌' 개최

조계종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6월 20일부터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의 서장(書狀) 대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매월 1회씩 10회에 걸쳐 열리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불교인재개발원은 "대혜 선사의 선수행 편지 모음집인 <서장>은 간화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불서"라며 "범어사승가대학 강주인 무비 스님의 강의를 통해 <서장>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비 20만원. (02)735-2428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제주 '관음사 사태' 해결
조계종 총무원 팔 걷었다

제주 관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계종 총무원측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총무부장 현문 스님은 6월 4일 제주도를 방문해 현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문 스님은 "제주불자연합은 시몽 스님이 백양사에서 출가한 것을 이유로 백양사 스님이 제주불교 자치권을 침해하고 파행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몽 스님은 30년 전에 법화사에서 주석하면서 법화사의 중창을 통한 제주불교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온 분"이지만 진명 스님은 "직할교구 재적승으로 2007년 3월에 직무대행으로 부임했고, 1년 전에 관음사에서 부주지로 명의만 올려놓은 상태이며, 중원 스님은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했으며 15년 전에 관음사에 주지로 부임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불자연합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음사 승가정체성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지효 스님 문중을 중심으로 재적승을 정비했다"며 "진명 스님은 지효 스님 문중의 일원으로 관음사 승가정체성 확립에 봉사하기 위해 주지후보자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동우 기자

대불련 고구려 역사유적 탐방단 대불련 발도장찍다!!!

COREA의 고구려를 찾아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중국동북부지역 답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편협한 민족주의가을 앞두고 중국에서 펼치고 있는 동북공정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반도의 역사가 아닌 광활한 대륙의 역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고구려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대학생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고 무한한 자신감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옛 선인들의 사상과 문화의 흐름을 지탱하고 있는 불교, 그 가르침을 이어가는 대학생 불자들은 우리의 옛 영토인 중국 동북지역 답사를 통하여 동북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주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일 시 : 2007년 6월 25일(월)부터 - 30일(토) (5박 6일)
장 소 : 중국 동북지역(대련-단동-집안-서파-백두산-통화-환인-심양-대련)
대 상 : 전국 대학생 약 50명



◆ 고구려 역사유적탐방단 일정 ◆

6월 25일(월)	요동반도의 끝을 밟다!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대련도착 고구려의 가장 아름다운 성 백암성!. 심양 백암산/ 통화로 이동 유적답사단 오리엔테이션
6월 26일(화)	백두산 천지에 오르다!	서파 / 고산 화원대, 금강대협곡, 5호 경계비, 천지 / 통화로 이동
6월 27일(수)	424년간 고구려의 수도 집안 ! 고구려 건국의 요람 환인!	집안박물관, 광개토태왕비, 광개토태왕릉, 환도산성, 장군총, 오호묘, 중조철교, 국내성 등 고구려 건국의 요람 환인! 졸본성, 오녀산성, 비류수, 장군분, 고군분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강의1 -고구려 역사 바로알기
6월 28일(목)	압록강을 따라서	주몽이 유목민과 정착한 본계 그리고…고구려의 천리장성 호산장성. 환인 / 단동 / 대련. 본계 본계수동굴, 천리장성 호산장성 압록강을 따라서(신의주, 위화도, 월량도) 강의 2-동북공정 바로알기
6월 29일(금)	대련에서의 마지막 밤	여순감옥, 자연사 박물관, 비사성 답사를 마치며(평가의 장)
6월 30일(토)	요동반도를 떠나며	대련출발 / 인천도착

◆ 후원 안내 ◆

이 시대,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글로벌시대, 당당한 리더로서, 가슴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냉철한 머리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 우리의 현 위치를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무한능력을 펼치기 위해 떠나는 저희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대학생불자가 꿈을 키울 수 있는 큰 거름이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140228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언제 어디서나 주인되는 무한능력발전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http://town.cyworld.com/yes)

1만여 명 불교인재정보 '원 클릭'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 · 대한불교진흥원과 공동 (가)불교정보뱅크 구축


현재 구축 중인 '불교인재뱅크' 일부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올 하반기 불교 관련 뉴스와 인물 정보, 카페, 블로그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종합포털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포털사이트에는 불자 인물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라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하경만)과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현재 공동으로 '(가)불교정보뱅크'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불자 인물과 종단 · 기관 · 단체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정보뱅크'는 크게 '불교인재뱅크'와 '불교종단 · 기관 · 단체' 정보로 나눠진다.

종단 · 기관 · 단체 등 정보도 자세히
6월 18일 시연, 사이트 이름 공모도

'불교인재뱅크'에는 불자의 사진, 인적사항, 수행 · 신행이력, 학력, 경력, 저서 등 세분화된 정보가 담긴다. 인물정보는 다시 직업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1만1000여 명의 기본정보가 입력됐고, 이달 말까지 세부 사항을 추가로 입력할 예정이다.

'불교 종단 · 기관 · 단체'에는 불교 각 종단과 기관, 단체의 연혁, 조직 구성과 인명 등의 정보가 담긴다. 현재 각 종단 · 단체별로 정보의 입력과 관리를 위한 계정(아이디)을 부여 받고 온라인상에서 개별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인물정보와 단체 정보 모두 대한불교진흥원이 10년마다 1회 발간하는 <한국불교총람>에 실려 출간된다.

불교종합포털사이트의 이름은 자료 구축 후 공모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불자들은 9월경부터 불교정보뱅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인재개발원 정순영 정보실장은 "올 3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해 몇 차례 보완을 거쳐 '불교인재뱅크' 사이트를 완성하게 됐다"며 "6월 18일 시연회를 통해 시스템 구성과 이용법 등을 소개할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시연회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그간 일간지나 포털사이트 등 유력 매체의 인물 검색란에 불교계 인사의 정보가 매우 부족했다"며 "불교계 인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불교계 인재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 불교정보뱅크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제22회 불이상 수상자 발표

우제선 교수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선정


우제선 교수.


도법 스님.

우제선 교수(동국대)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22회 불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이상은 재가 여성불자 모임인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연구분야 수상자인 우제선(42) 교수는 인도불교 전공자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과 캐나다 캘거리대학 연구원, 일본 용곡대 초청교수 등을 거쳐 현재 동국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실천분야 수상단체로 선정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1999년 창립해 실상사귀농학교, 불교생명학교, 산내여성농업인센터 등을 개설하고 '친환경공양미 운동'을 펼치며 생태적 삶과 환경 ·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불이회는 "우제선 교수는 폭넓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불교학 부분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불교포교 분야에 혁혁한 공로를 쌓은 점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02)762-5624 여수령 기자

"교육현장 노하우 포교 활성화에…"

전국교육경영직불자聯 '푸루나' 창립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청소년 인성 교육과 불교 포교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전국교육경영직 불자연합회 푸루나(회장 진정순)가 6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했다.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푸루나 고문을 맡은 김종서 前 교육개혁위원장, 김해인 前 서울시 교육위원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푸루나는 전 · 현직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 경영직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모임. 지난 1월 1차 준비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4월 21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진정순 前 당곡초등학교 교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다. 수석부회장은 이학송 교장(남양주 광동중학교)이, 사무총장은 이경석 교육인적자원부 장학사가 맡는다. 임기는 2년이다.

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생 학교 교육현장에서 닦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종단의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혜총 스님은 "교육경영직 불자들은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 전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성을 가진 존엄함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쉼 없는 수행정진을 통해 여래의 지혜와 덕성을 자각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푸루나는 앞으로 적극적인 회원 모집을 통해 전국조직을 결성해 월1회의 정기법회와 지역별 법회, 연 2회의 수련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별 연수와 정책 포럼을 개최해 청소년 포교 비전과 청소년 불교 교육 정책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장경사 홍련 종묘 1만개 무료 분양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 있는 장경사(주지 의연)는 6월 16~17일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연꽃 종묘 1만 개를 무료로 분양한다. 사찰 방문객에게 선착순으로 분양할 연꽃 종묘는 우리나라 전통의 홍련(紅蓮)으로, 함평 연꽃나비(대표 임명란)가 장경사에 보시한 것이다. 이미 싹이 나와 있는 홍련 종묘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으며, 가정에서 화분에 심어 키울 수 있다. 장경사 측은 "봉축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의 정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연꽃으로 가정을 장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연꽃 종묘 분양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031)743-6548

여수령 기자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연합회(운영위원장 정련)는 6월 14~15일 해운대 벡스코(BEXCO) 1층 전시장에서 '2007 부산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일하는 노인은 즐겁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공공부문 채용관 △일반채용관 △노인취업훈련관 △취업게시판 △실버쉼터 등으로 꾸며지며, 기업체 100여 곳이 참가해 어르신들의 취업을 돕는다. 부산시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51)743-4527 여수령 기자

실종아동 · 장애인 신고하세요

신고 않고 보호시 처벌…이달부터 집중 단속

사찰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실종 아동 · 장애인을 임의로 보호하고 있다면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비록 해당 사찰이나 기관이 관련 법률조항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6월 2일 '종교계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에 관한 안내' 공문을 사찰과 복지시설에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6월부터 정부의 합동일제조사가 실시되는 만큼, 사찰이나 불교계 복지시설 등에서는 보호 중인 아동과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수령 기자

"교각 건설 수행환경 훼손"

부산 광명사, 진구청에 탄원서 제출

전통사찰인 부산 광명사(주지 무아)가 도로 공사로 인한 수행및 자연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탄원서를 통해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광명사는 지난 4월 30일 부산 진구청에 '사회복지법인 애림복지재단의 교각설치 및 도로개설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공사는 애림복지재단이 노인 사회복지 시설 증축을 위한 교각 및 도로 개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무아스님은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교각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수행도량인 광명사 위로 지나가 수행환경 및 자연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므로 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진구청은 "오는 19일까지 공람기간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건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사는 앞으로 '광명사 수행환경 수호대책위원회(가칭)'를 결성하고, 6월 12일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농촌 돕기 직거래 장터 1만여 명 동참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가 6월 1~3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직거래 장터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돕기 위해 삼광사와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회장 장병수)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 삼광사와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는 1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협약서'를 체결했다.

장터에는 한국사이버연합회 회원 40여명이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 판매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한미FTA 타결 이후 어려운 농촌의 상황을 개선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만 인류가 누려야 할 참사랑, 행복, 진리의 이상세계와 태상가정

당신은 당신의 본성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아는가?

당신이 진실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참된 진리를 추구함에 목숨을 다해 열정을 태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 ◆ 당신이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인지 아는가?
- ◆ 생사를 초탈한 절대 공의 세계(반야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
- ◆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고자 하는가?
- ◆ 대자유함과 무애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 ◆ 완성된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천주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가?
- ◆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 ◆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얻은 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아는가?

본성의 존재는 온 우주와 하나 되니, 가슴을 관통하여 불어오는 바람에서 부드러운 신성의 손길과 마주하고 맑은 물속에 손을 담그면 그대로 내 몸은 그 맑음과 하나가 된다. 청정한 하늘은 이미 나의 가슴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은 어느새 사랑의 파동을 알아채고 깊은 사모의 정으로 나에게 화답한다. 날아가는 새의 날개 짓에서 진정한 자유 함으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의 자태 속에서 너울너울 함께 춤을 춘다.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의 연애에 온 몸이 싱그러워지고 죽어가는 개미를 구해주니 그 개미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정은 신의 사랑으로 온 몸을 휘감고 돈다. 신성의 강렬한 파동은 천지를 사랑의 환희로 넘실대게 한다. 또한 본성의 부부가 마주보고 있으면 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일어나니 그 사랑의 기운은 서로 어울려 지극한 평화와 미묘한 향기로 피어나 신묘하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다 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상대에게 전해지니 그 사랑 속에 하나 되어 극락을 노닐도다. 서로를 사랑하는 몸짓은 천상의 환희 새, 봉황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것 같으니 온천지를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출렁이게 한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사랑의 꽃망울이 터지듯 폭발한다. 이러한 사랑의 황홀함은 오직 본성의 자리에 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본성의 존재들이 신의 사랑 속에 서로 어울려 살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상세계요, 이러한 세계를 알고 누리기 위해 당신은 강력한 의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진실한 깨달음과 본성의 사랑, 행복을 꿈꾸는 만수행자는 귀 기울여 들을 지어다. 그대의 꿈은 존재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그 목적을 위해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두고 외면한다면 그대는 참 수행자가 될 수 없으니 가슴을 열어 태상가정에서 참된 스승의 인연과 참된 형제의 인연을 반드시 찾길 원하노라.

태상가정의 존재 이유

부처님,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아시는 참다운 본성의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어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사랑의 공동체인 태상가정을 내놓으셨음이라. 태상가정은 신의 사랑으로 너와 내가 없고,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오직 신의 사랑만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참행복에 들게 하고자 한다.
태상가정은 개개인의 충족되지 못한 가슴에 참아버지로 어머니로 때로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과 정으로 신성을 제 각각 그 모양을 달리하여 나타내시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늘의 사랑으로 위로하신다. 본성의 존재가 미치시는 사랑은 너무나 큰 에너지 파동이기에 이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쉽게 이 사랑에 정화되고 동화된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해 온 심정과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모든 타락과 죄악, 업보 등이 사라지고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이 만 인류, 만 영계, 만 종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만 생령이 그토록 그리워 해온 진실한 신의 사랑,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승의 행복이 전체의 존재목적이기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태상가정은 만 인류, 만 생명체의 심정이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자, 귀의처가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에서 뜻을 이룰 준비된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신 어머니가 계심을 압니다. 또한 하늘과 자녀들을 위하여 환경적 기반을 준비하신 귀한 존재가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제자를 길러 오신 귀한 존재가 계심을 압니다. 이 땅에 신의 사랑을 상속 받아 각기 다른 사명의 기반을 준비해 오신 깨달은 모든 이들이시여! 태상가정에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당신의 열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과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이제 만남의 한 때를 말씀하시니 준비된 태상가정과 만나 하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그리움을 해원하소서.

더불어 불굴의 의지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그대는 고독과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으로 불행하고자 이 땅에 태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그대가 태어난 목적은 오직 하나. 그대 스스로가 신의 현신임을 알아 신의 자녀가 되고 그 분 자체가 되어 이상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다. 진실한 신의 사랑으로 개인을 완성하여 아름다운 이상세계에서 함께 하길 원한다면 그대는 태상가정에 올지어다. 이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지어다.

태상가정 연락처 전 화 053-954-9117 핸드폰 010-6560-9117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⑮ 능가산 내소사

자연의 혜택 속 희망 가꾸는 절과 마을


돌담이 정겨운 석포리.

정부서 테마마을로 지정…재원 없어 투자 유치 못해
마을 정비되었지만 민박집 운영해 공과금 내는 정도
몇 해 전 절집서 땅 내줘 숙원 사업인 노인정 건립


내소사 전경.


꽃창살.


내소사 전나무 숲길.


내소사 고려 동종.

희망은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한다. "여기에 오는 모든 이를 소생하게 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내소사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로 붐빈다. 백의관음보살좌상과 눈을 마주치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러보고 싶은 절집이다. 일주문을 통과하여 천왕문에 닿는 전나무 숲길은 속세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성불의 길로 통한다. 부처님은 절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은 산문 밖에서 기다리도록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혜구두타(惠丘頭陀) 스님이 세운 절로 원래 이름은 소래사였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절을 청민 선사가 중창하여 인조 11년 아름다운 대웅보전을 중건하였다. 절집이 문맹퇴치 운동에 앞장서서 1932년 계명학원을 설립하고 아랫마을의 무취학 아동들과, 무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서래선림을 개원하여 호남불교의 선풍을 일으키고, 혜산우암 선사가 봉래선원을 신축하여 현재의 대가람을 이루었다.

내소사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은 소박함이 마음을 끄는 절집이다. 채색하지 않은 대웅보전과 꽃문양으로 장식된 문살은 가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낸다. 꽃창살에 초화문을 정교하게 투각하여 붙인 연꽃과 국화, 해바라기 꽃이 피어 마치 바람에 살랑대는 느낌이다. 그러나 법당 안에서 볼 때 화려하던 꽃 그림자가 밖에서 보면 정갈한 금강석 모양 창살일 뿐이다. 안의 세계가 모두 밖으로 나올 수는 없는 모양이다. 절집을 짓던 목수가 문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음을 깎아냈을 터, 불심으로 정성을 기울인 탓일까. 오래된 시간이 나뭇결에 그대로 살아있다. 꽃창살에는 부처님의 설법 중 환희의 꽃비가 내리는 광경과, 부처님 세계에 나고자 연화생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한다.

변산의 절경과 어우러진 내소사는 아름다운 주변 환경 탓인지 예부터 많은 스님과 시인묵객들이 들러 시를 읊던 곳이었다. 경내 설선당 문짝에는 언제나 울림이 있는 시가 씌어 있다. "당신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 여유로운 발걸음 고요한 마음, 따뜻한 미소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이 시를 읽고 마음 곱게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일주문 앞 할머니 당산나무는 950살 나이를 허리에 저장하고 산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씨도 들러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남겨 두었다.

능가산 자락에 포근하게 둘러싸여 있는 석포리는 30여 호 남짓 되는 사람들이 어울려 산다. 6가구가 식당을 하고, 나머지는 노령가구라 자녀들 용돈에 의지해서 사는 전업농민들이다. 정부는 농민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전통테마마을로 지정을 하는데, 입암마을도 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소득으로 창출되기까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마을에 재원이 없어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박동선 개발추진위원장은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말문을 열었다.

"지금 우리 마을은 내소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민박을 하여 공과금을 내는 정도입니다.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 마을은 깨끗하게 정비되었지만, 7가지의 거리가 없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개발위원장님은 뭔가 확실한 대안이 없어, 테마마을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

"먹을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쉴거리, 잘거리 등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에게 확실하게 나눠 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과 친절입니다. 우리 마을은 석포호가 있어서 물이 풍부하여 하천에 다슬기가 많이 삽니다. 깨끗한 자연은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박동선씨는 어려서 불심은 있었지만 깊은 인연을 맺고 살지 않았단다. 일 년에 한두 번 절집에 들르지만 불심으로 입암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산을 좋아하고 스님들을 좋아해서 도시의 편리함을 버려두고 왔다.

5대째 입암마을에서 만박집을 운영하는 강성태씨는 젊은 날 돈을 쫓아 도시에 나가 살다가 30년 만에 몸이 고단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욕심 없이 편안하게 사니까 병이 달아나 버렸어요. 민박집을 하면서 돌담 쌓는 일이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취미생활이 되었습니다. 늘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지요." 매일 아침 그의 하루는 담배꽁초를 줍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잔소리를 하면서 주웠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고맙단다.

입암마을은 옛날보다는 인구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도시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민들도 더러 있고, 간간히 서울 사람들이 공기 좋은 곳에 터를 잡아 옮겨 오고 있다.

마을 밖으로 돌아나가는 하천은 물을 정화하기 위해 심은 나무들로 빽빽했다. 덕분에 내소사 아랫마을은 1급수로 농사를 짓는단다. 맑은 물과 공기를 마시고 살아서 그런지 모두 젊어 보여 나이를 구분할 수가 없다.

몇 해 전 마을의 오랜 바람이었던 사람들의 놀이터가 생겼다. 절집에서 땅을 내주고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주어 노인정이 생겼다. 마을에 어울리는 황토집이 근사해 보였다. 가끔 스님들도 식사 후 마을 산책을 내려온다고 했다. 속세로 나오는 것도 정진의 시간인 듯하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불평 없이 자연이 주는 혜택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살고 있다. 그들은 촛불처럼 타 들어가는 느림을 지니고 사는 것이 편안하다고 했다. 나를 위해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며 진리를 배워가는 사람들이다. 혼자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에는 부족하지만, 마을사람들이 우리라는 큰마음을 품을 때 마을 어귀에 희망이 서성거리지 않을까 싶다.

내소사=김상미(수필가 · 본지 객원기자)


석포리 중심도로와 상점.

세상 모든 일은 행복을 위한 공부거리입니다

밝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마음공부의 핵심

신간 행복한 공부

김정섭 지음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진 스테디셀러 《행복한 마음》 저자의 두번째 이야기!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소중한 마음공부법을 일러주는 수행입문서! 마음공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려운 이론이 아니다. 인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공식이 바로 공부이고 수행이다. 수행의 금이굴에서 만나는 24가지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일러준다. 마음공부의 초심자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실천 가능한 공부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책!

180쪽 | 값 8,000원 | 양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

중앙 독서감상문 추천도서

세월이 흐를수록 감동의 깊이가 큰 울림으로 되살아납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는 172가지 뜻깊고 재미있는 이야기! 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삶의 여정에서 막히고 맺혔던 갖가지 문제들의 해답을 스스로 얻고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현대인의 고단한 영혼 위에 드리운 커다란 나무 그늘 같은 책

55쇄 행복한 마음



김정섭 지음

530쪽 | 값 9,900원 | 양장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Tel 031)955-3104 www.gimmyoung.com 김영사

일주문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참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은 6월 5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故육군 이동신 법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친환경 공양미 실천 협약식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6월 15일 열한 번째 '친환경 공양미 실천 협약식'을 서울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개최한다.



'혜거 스님 좌선 강의' 개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6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혜거 스님의 좌선 강의'를 개최한다. (02)3218-4825



지역 어르신 초청 큰 잔치

인천 수미정사 주지 종연 스님은 6월 17일 오전 11시 개산 4주년을 기념해 지역 어르신 300명을 초청 '어르신 큰 잔치'를 개최한다.(032)427-8400



팔만대장경 이운대법회

호국팔만대장경이운추진위원장 성원 스님은 6월 23일 오후 2시 강화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 이운대법회'를 개최한다. (032)933-8234



'평화통일' 기원 위령제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이사장 대풍 스님은 6월 6일 함양 견불사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다.



독거노인 돕기 '孝 묵난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6월 5~12일 방정 한건동 화백과 함께 '종로구 독거어르신돕기 기금마련 효 묵난전'을 개최했다.



알기 쉬운 불교교리 강좌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6월 13일부터 12주에 걸쳐 '알기 쉬운 불교교리강좌'를 동산법당에서 개최한다. (02)732-1206

경찰불자 포교 헌신 김진홍 거사 별세



전국경찰불자회 사무국장 상임법사 등을 역임한 김진홍 거사(사진)가 6월 5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故 김진홍 거사는 전국경찰청불자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 마포경찰서 상임법사, 경찰청불교회 고문 등을 맡아 경찰불자 포교에 헌신했다.

여수령 기자

"현장 경험 살려 지역포교에 매진"

인터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승가는 부처님의 일문권속(一門眷屬)이고 한 가족이니 화합을 위해 대중의 공의에 귀 기울이는 원융살림을 지향하겠습니다. 또한 20년이 넘는 대중포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포교에 노력하며 불지종가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로 임명된 정우 스님(사진)은 6일 부산지역 불교 언론인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통도사는 2003년 11월, 前 방장 월하 스님 입적 후 3년 6개월 동안 방장을 추대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前 주지 현문 스님의 임기 만료 후 주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중 지난 3월 26일 임시중앙종회가 원명 스님을 신임방장으로 동의하고, 방장 원명 스님은 5월 8일 산중의 합의에 따라 정우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다.

이후 5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우 스님은 그간 소홀했던 통도사 지역포교에 새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스님은 "통도사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박물관, 자비원, 포교원 등을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포교라 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현장 포교에 몸담은 경험을 살려 통도사의 지역 포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우 스님은 "교육과 포교는 다르지 않다"며 포교국 안에 포교과와 연수과를 두어 교육을 통한 '성장의 포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교국 내 포교·연수과 신설
교육 통한 '성장 포교' 추진

정우 스님은 "통도사는 가까이에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가 있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안으로는 수행도량으로 깊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과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도량 내 철조망 및 철대문 등 사찰 내 협오감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내지 내의 토지 문제를 검토해 통도사 소유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로 꼽고 있다.

현재 7직 신임 소임자에 대한 인사를 마친 스님은 "소임 역할의 전문화 및 사찰 관리에 대한 결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 시스템 구축과 말사 운영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았다.

정우 스님은 1965년 출가해 홍법 스님을 은사로 1968년 사미계를 받고,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5년 대중 불교의 장을 열기 위해 천막법당으로 시작한 구룡사를 비롯해 여래사, 원각사, 법계사, 반야사 등 다수의 도심포교당을 창건했다.

미국 LA 선연사 건립, 뉴욕 원각사의 주지를 맡는 등 해외 포교에도 앞장섰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개혁회의 상임의원, 불교TV 대표이사,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1년에는 만해대상 포교상을 수상해 그간의 포교 원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양산=하성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선정

6월의 환우 이상문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의 환우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상문씨(38 · 사진)를 선정했다.

용접 관련 일을 하던 이씨는 평소 허리통증과 어지럼증을 호소해오다 최근 만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1차 항암치료 후 무균실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이씨는 가족의 빚과 자신의 과도한 치료비 걱정에 혼자 남아 있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다.

하지만 이씨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골수)이식을 받으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날을 기다리고 있다. (02)734-8050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청소년 눈높이 맞는 불교 교육 필요해요"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백명숙 회장



"청소년들이 불교를 쉽게 접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백명숙(62 · 사진) 신임회장은 청소년 불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2일 회장으로 취임한 백 회장은 지난 8년간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를 이끌어 온 김석조 前 회장과 내외지간이다.

김 前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학생들과 현장에서 만난 경험이 많아 청소년의 마음을 잘 이해하니 나보다 더 훌륭하게 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머니처럼 자상하면서도 강하게 부산 파라미타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옥천사 합창단장, 전국합창단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백 회장은 현재 한국과 일본의 불교문화교류에 뜻을 두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음성공양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온 백명숙 회장은 "찬불가 안에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다"며 "학생들이 음악을 좋아하니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열린선원 개원 2주년 기념 법회



서울 갈현동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6월 3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예수도원 원장 김진 목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주년 기념법회 및 조상님 합동천도대재'를 봉행했다.

강북복지관, 장애 청소년에 장학금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성산)은 5월 26일 '장애 청소년 및 장애가정 청소년을 위한 2/4분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애학생 또는 장애가족이 있는 학생 중 모범이 되는 중 · 고등학생 12명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안암어린이집, 나눔의 집 방문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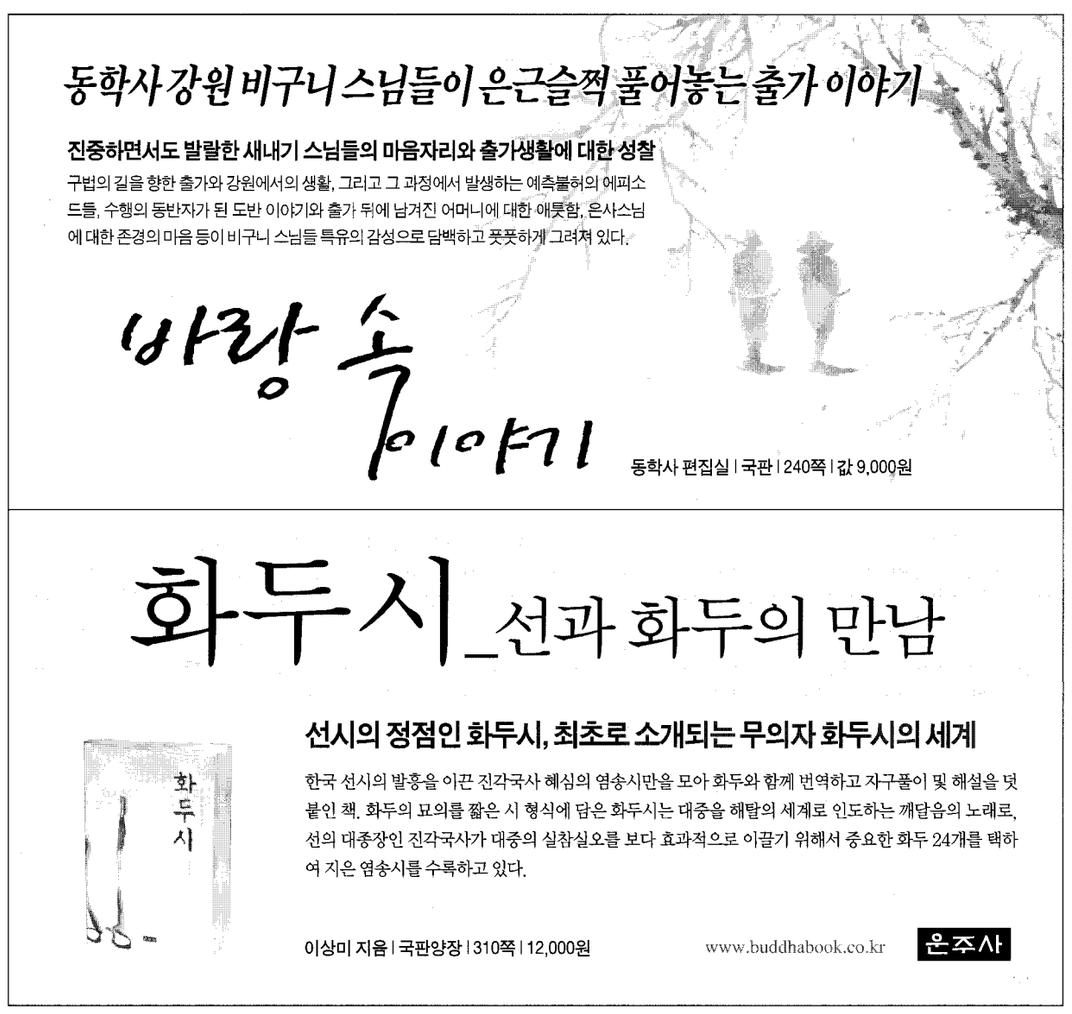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 안암어린이집(원장 혜도)은 6월 3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원장 원행)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이날 어린이집에서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건립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지원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6월 7일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법당에서 난치병어린이 18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복지재단이 지난 5월 4일 개최한 '제7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에 동참한 불자들의 성금과 재단 미니홈피를 통해 모금한 '도토리 모금액' 등 3700만원이다. 지원금에는 특히 불교공부를 하다 숨진 동생의 유산을 정리해 700만원의 기금을 재단으로 기탁한 사례도 있어 눈길을 끈다.





아름다운 삶·소통



“정상은 정복하는 곳 아니라 하나 되는 곳”

에베레스트 정상을 배경으로 선 송귀화씨(왼쪽)와 동료 산악인 김주진씨(사진제공). 아래 사진은 6월 2일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과의 차담 장면.

[에베레스트 등정한 산악인 **송귀화**씨]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순간 “그냥 좋았어요”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순간의 기분은 어떨까?

30년 전 산악인 고상돈씨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말로 에베레스트 정상(8848m)을 밟는 순간의 감회를 전했었다. 그의 흥분된 목소리는 인간의 도전 정신이 보여주는 위대한 결과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선 산악인. 그것도 59세라는 나이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곳에 섰던 송귀화씨. 우리나라 여성 대원으로는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반 기록을 세운 송씨는 “그냥 좋았다”는 한 마디 뿐이었다. 정상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운이 좋았던 지 날씨가 아주 맑아서 파노라마로 펼쳐진 히말라야의 원경을 30여분 동안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장 155Cm에 몸무게는 50Kg 정도. 그 여린 몸으로 그 같은 쾌거를 이룬 송씨지만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말로 표현 하는 데는 지극히 평범했다. 6월 2일 봉선사를 찾은 송씨는 부처님께 3배를 올리고 주지 철안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등 모처럼 푸근한 시간에 빠졌다.

5월 17일 송씨는 히말라야의 티베트쪽 북동릉 루트로 정상을 올랐다. ‘프라잉 점프 2007 김해’ 원정대의 일원으로 참가한 송씨는 10시간의 사투 끝에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송씨에게 티베트 쪽 루트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티베트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설산 행로이기 때문이다. 티베트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초몰랑마라 부르는데 여성적인 신성을 부여한다. 송씨는 한 번도 여성이기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위를 향해 오를 뿐이고 인연이 닿지 않으면 발길을 돌려 다음을 기약하는데 익숙해 있다. 산과 사람도 인연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복자로서의 산악인이 아니라 산에 대한 일체감으로 교류하는 산악인이고자 스스로 원력을 세웠기 때문이다.

“파워 젤 한 알을 먹고 정상을 향하는 순간 두려움은 없었어요. 실패할 것이란 생각도 없었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7대륙 최고봉 등정이 목표, 이제 2곳 남아

오를 때 보다는 내려 올 때가 더 힘들었다는 송씨. 더러 목격하게 되는 시신들을 스치며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관세음보살…”할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였고 정진이었다고 회상했다.

송씨는 10년 전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봉 킬리만자로(6195m)를 오르는 길에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을 만났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했다. 산을 오르는 일이 수행인 송씨에게 부처님은 큰 스승이 아닐 수 없다. 철안 스님과 여러 산을 오르며 산사람으로서의 ‘마인드’를 굳게 다질 수 있었다. 정상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셀파들을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팀의 화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불자로서의 자연스런 마음가짐으로 체질화 된 것이다.

무엇보다 송씨는 셀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들의 산을 경배하는 마음은 참으로 숭고해요. 순간순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다 배울 만 하다”고 전한다.

서울시청 공무원(보건직)이었던 송씨는 10년 전 킬리만자로를 오르고 난 뒤 본격적인 등반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었다. 이후 남미 최고봉 아콩카구아(6959m), 유럽의 엘부르즈(5895m)를 비롯 북미의 메킨리(6194m)를 올랐다. 이번 에베레스트 등정이 5개의 대륙 최고봉을 밟은 기록이 됐고 앞으로 남극의 빈센메시프(4897m)와 오세아니아주의 칼스텐츠(4884m)를 올라 7대륙의 최고봉과 인연을 맺을 각오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3>그 누구라도 임종할 때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해도 중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헛된 삶이니, 목숨을 거둘 때 금생의 나쁜 업만 지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복을 짓는 것은 삼생(三生)의 원수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엇 때문에 삼생(三生)의 원수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 생에서 어리석은 복만 짓느라고 견성(見性)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생에서는 전생에 지어 놓은 어리석은 복을 받아쓴다고 공부를 하지 않아 그저 업(業)만 짓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생에서는 전생에 어리석은 복만 받아쓰고 수행을 하지 않았기에 몸을 떠날 때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받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은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선가귀감> 73장에서 말한다.

凡人 臨命終時 但觀五蘊皆空 四大無我. 眞心無相 不去不來 生時 性亦不生 死時 性亦不去 湛然圓寂 心境一如. 但能如是 直下頓了 不爲三世所拘繫 便是出世自由人也. 若見諸佛 無心隨去 若見地獄 無心怖畏. 但自無心 同於法界 此卽是要節也. 然則 平常是因 臨終是果 道人須着眼看.

그 누구라도 임종할 때에는 오온이 다 공(空)이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사대(四大)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통찰해야만 한다. 참마음은 어떠한 형상이 없으므로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니, 이 몸이 생겨날 때에도 본디 성품은 여여(如如)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이 몸이 죽을 때에도 그 성품은 여여(如如)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맑고 고요하고 오롯하여서 마음과 경계가 하나이다. 오직 이와 같이 보고서 단숨에 바로 깨쳐 삼세의 인과에 얽매이지 않아야 세간을 초월하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을 만나도 그 경계에 집착하여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아도 그 경계에 놀라지 않으므로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다. 오직 스스로 무심하여 법계와 하나가 되어 같아질 뿐이니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부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살면서 지은 업이 씨앗이 되어 죽음에 이르러 그 과보를 받게 되니, 도를 닦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점을 눈여겨 보아야만 한다.

실체없는 몸에 집착하여 온갖 괴로움 일어나
마음 다해 수행한다면 반야의 씨앗 심는 것

'오온'과 '사대'로 이루어진 중생의 몸은 인연의 조건이 갖추어져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인데 중생들은 이것에 집착하여 온갖 번뇌를 일으킨다. 이 집착이 중생을 육도에 윤회하게 하는 '생사의 뿌리'이다. 덧없이 무너질 몸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이것들이 마구니가 되니 중생들의 온갖 괴로움이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몸과 알음알이 마음 작용은 무상(無常)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여 벗어나지를 못하므로, <선가귀감>에서 수행자들은 그 실체가 '공성(空性)'임을 통찰하라고 한다. 우리들이 그 자리가 공(空)임을 알 때 늘 여여(如如)하여 변하지 않는 본디 성품인 참마음이 드러난다. 참마음은 지극히 맑고 고요하고 오롯하여서 마음과 경계가 하나이다. 인과를 벗어나 세간을 초월한 자유인으로서 모든 집착을 떠나 무심해질 때에 부처님 세상인 법계 그 자체가 된다.

마음 닦는 공부는 헛됨이 없다. 마음을 다하여 수행한다면 설사 금생에 알지 못하더라도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목숨을 마칠 때도 업의 분별에 끌려 그 어떤 악취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몸을 바꾸어서 다시 태어날 때에도 무명번뇌가 나를 어둡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부를 잘 살피고 살펴야 한다. 무상한 세월이 빠르기에 생사를 밝히는 일이 더 큰 것이다. 몸과 마음이 튼튼할 때에 일찍이 이 공부에 힘을 쓰기 시작한다면 늙어서 시작하는 것보다도 공부의 힘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라고 서산 스님은 말한다.

怕死老年親釋迦.

죽음이 두려운 늘그막에서야
부처님을 가까이 하도다.

이것은 중국 송나라 시대의 사람인 소강절(邵康節)의 시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의 앞 구절은 "젊어서 부와 명예를 구할 때에는 공자를 그리워하다가[求名少時慕宣聖]"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젊을 적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 입신출세(立身出世)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고 싶은 마음에 세속의 부와 명예에 집착하여 바쁘게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진 늘그막에 이르러서야 두려운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게 된다는 뜻이다. 때는 많이 늦었지만, 백발이 성성하여 기력이 없는 늘그막이라도 정신 차려 최후의 한 생각을 바로 가짐으로써 영원한 빛이요 생명인 극락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을 보아야 할 것이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好向此時明自己 百年光陰轉頭非.

이런 때에 눈을 떠서 자신의 마음을 애써 밝혀야만 하니
백 년 세월도 몸을 바꿀 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느니라.

중생의 삶이란 부처님의 품을 벗어난 나그네 인생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생의 죽음이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영원한 빛이요 생명인 아미타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이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는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오온(五蘊)'과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중생의 몸과 마음 자체가 인연의 조건이 갖추어져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가 없는 '공(空)'임을 통찰해야 한다. 덧없이 사라질 부질없는 중생의 인연을 벗어나 수행자가 공성(空性)을 깨달아 들어간 부처님의 세상을 야부(冶父) 스님이 <금강경>을 풀이한 게송에서 말한다.

自少來來慣遠方 幾迴衡陽渡瀟湘
一朝踏着家鄕路 始覺道中日月長.

어릴 적부터 줄곧 나그네 노릇을 하면서
몇 번이나 산을 돌고 큰 강을 건넜던가?
어느 날 아침에 고향 길을 밟고 보니
부질없이 객지에서 긴 세월을 보냈구나.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염주(念珠)

염주는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생각하는 구슬'이라는 뜻이다. 불보살님께 예불할 때나 염불, 진언을 외울 때 그 횟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므로 수주(數珠)라고도 한다.

염주 한 알을 굴릴 때마다 번뇌가 끊어짐을 상징하므로 일념으로 염주를 돌리면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해지고 죄업이 소멸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염주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다고 전한다. <불설목환자경(佛說木患子經)>에 따르면 난국의 왕 파유리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 "무환나무 열매(木患子) 108개를 꿰어서 항상 지니고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씩 돌려서 20만 번을 채우면 백팔 번뇌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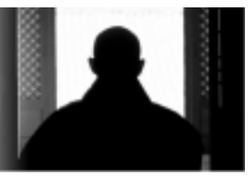
<교량수주공덕경>에는 '염주에 모주(母珠)가 있는데 이 모주는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백팔 염주로 염불을 하면 우리 중생이 지니는 백팔 번뇌를 모두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되는 첩경(지름길)이 되는 공덕이 있다'고 설한다.

염주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자거 염주, 목환자 염주, 진주 염주, 율무 염주, 보리자 염주, 시우쇠 염주, 구리 염주, 수정 염주, 연자 염주 등으로 나뉜다. 염주의 숫자에 따라 108염주, 1000염주, 단주(손목에 거는 7개, 16개, 21개) 등이 있다.

1080주는 상품주(上品珠), 108염주는 최승주(最勝珠), 54주를 중품주, 27주를 하품주라 한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5>



비유

문학에서 비유(譬喩)는 이해를 빨리 하게 하고 표현에 멋을 내기 위하여 쓰는 기법으로, 직유와 은유로 나뉜다. 직유는 직접 두 가지 사물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처럼, 같이, 비슷하다' 등의 말이 매체로 쓰인다. 이에 비하여 은유는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다만 겉으로 비유하는 방법이다.

현대 심리상담에서도 비유가 많이 쓰인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원거나,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 감정 ·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화의 도구로서 비유는 인지와 정서의 세계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감정의 영역 속에서 사고과정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비유는 무의식의 영역 속에 있다가 행동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비유는 기존의 틀을 깨고 다른 틀을 찾아내며, 실재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비유는 감정과 지성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단순히 말하거나 들을 뿐 아니라 언어를 '경험하게' 한다. 상담에서 직접 다루면 반발이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힘든 감정도 비유를 통해 간접 표현을 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일수록 비유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 혹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독특한 비유를 따라가면서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

불교에서 비유란 부처님 교설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실례나 우화 등을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불경을 조직하는 구성 요소를 문체와 기술(記述) 형식,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12분교(分敎) 가운데 하나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매우 즐겨 썼다. "비유로써 말하리라"고 하시며 시의적절하면서도 상담상황에 꼭 들어맞는 절묘한 비유를 동원해 내담자의 심금을 움직이고 이해와 공감, 변화 및 성장을 촉진시켰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통해 이해를 얻는다' '비유란 매우 수승한 것이다' 하고 비유를 직접적으로 찬탄하기도 했다. '비유란 옷감에 냄새가 납아 있을 때 다른 향기를 쏘여서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경전에 나오기도 한다.

부처님은 시의적절한 비유로 내담자 심금 움직여
전생 · 금생사건 · 우화 등 모아 엮은 비유경 여러권

현대심리상담에서도 불교에서도 비유를 활용하지만, 불교가 훨씬 더 폭 넓은 의미로 쓰고 있다. 현대 상담에서 쓰이는 문학적 비유, 즉 은유나 직유를 비유에 포함시킨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의 전생과 금생의 사건이나 이야기와 연결 지은 이야기인 아바다나를 비유(譬喩)라 하고, 짧은 우화인 우파마를 비유(比喩)라고 한다. 이렇게 갖가지 종류의 비유를 모아서 엮은 비유경이 여러 권 있다. <현우경> <백유경> <찬집백연경> <잡보장경> <법구비유경> 등이 그 예다. 국어사전에는 비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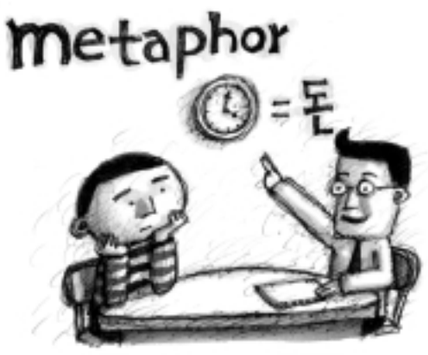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28차 최 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 자격증 취득 可

개강안내 6월 21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사증 발급
-수료후 미국최면대학 편입학 可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지,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 1544-2741

선지식을 찾아서

“남에게 좀 지고 살면 안될 일 없어요”

현성 스님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총재)

홍은동에 위치한 현성정사로 가는 길에는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오고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괜스레 설레게 만들었다. 갖가지 빛깔의 장미꽃들에게 망설임 없이 마음을 내주면서 길을 걸었다. 저렇게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음을 애닯아 하지 말고 저토록 날카로운 가시나무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었음을 장하게 여겨야 한다는 어느 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현성 스님은 ‘백미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스님의 눈썹이 하얗다고 해서 백미스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스님은 양로원을 비롯하여 불우한 사람들에게 쌀 보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기도 하다.

“80년에 도선사 주지를 맡았어요. 12년 동안 주지소임을 맡아 일했는데 여름철에 홍수가 나서 수재민이 발생하거나 하면 구청장보다 먼저 현장에 달려가서 쌀을 건네주었지요. 그리고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나 추석 설날이 되면 도봉구청에 80킬로그램짜리 쌀 50가마를 보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하여 불우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어요.”

현성 스님은 독거노인들에게 쌀 70가마를 보시하기도 했으며, 78년부터는 안양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법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때마다 매년 해오는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도 2600여명이나 되는 전 재소자들에게 빵과 두유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설날에는 떡국을 대주고 있으니 백미스님이라 불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성 스님은 부산 선암사에서 11년 동안 머물면서 선방에서 가부좌 틀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하였고, 또 1000일 기도를 무사히 마쳤다.

> 청소년은 불교의 기둥이요 희망
> 일방적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 큰 그릇 만드는 인성교육이 중요

“선암사 선방에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석암 큰스님을 찾아갔지. 석암 큰스님께서 나를 보시더니 여기는 선방이라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나무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지. 방부 들여도 좋다는 석암 스님의 허락이 떨어지기에 어찌나 좋던지… 가난한 시절이라 몸에 이도 많고 그랬어요. 한 겨울인데도 누비 두루마기가 있나, 내복도 한 벌 밖에 없어 껴입을 옷이 있어야지. 추위에 떨면서 공부해도 참으로 신심이 절로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21일 용맹정진에 들어갔지. 며칠동안은 잠을 못 이겨 고생했지만 그 고비를 넘기니 잠을 자나 안 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27명이 용맹정진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일곱 사람만 남게 되데요. 21일 용맹정진을 하고 나니 내가 봐도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선가에서는 선방 문고리 잡아 본 사람하고 안 잡아 본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한 철 살고 나니 석암 큰스님께서 산철에 백일기도 할 수 있느냐고 하시길래 그 길로 11년 동안 선암사에 머물렀습니다.”

석암 스님이 열반하실 때 ‘범망경강의록’과 ‘오계책자’를 받았고 그래서 현성 스님은 석암 스님의 법제자가 되었다. 선암사에서 공부한 것이 평생을 두고 수행자로서 살아가는데 버팀목이 된다고 하니 참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현성 스님은 도선사 주지를 12년 동안 맡으면서 많은 불사를 한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80년대 초에 새마을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내무부장관인 노태우씨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 인연으로 해서 도선사 증축을 할 수 있었지요. 그때 도선사는 군사보호지역에다 그린벨트에다 국립공원이라서 돌 하나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할 정도로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열 몇 평에 불과한 대웅전과 요사채를 조금 넓힐 수 있었고 일주문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사찰의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불사가 그냥저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현성 스님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님은 도선사 주지소임을 맡았을 때 전방부대에 법당을 13개 정도 지었다. 국방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부족한 자금은 절에서 보조를 하는 정도였지만 일년에 80평 되는 법당을 하나씩 만들어내니 주위에서 현성 스님을 두고 “별 세 개쯤은 달아도 된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보살들과 함께 밤새도록 떡을 만들어 군부대 일요 법회에 가는 등 그때 참으로 신바람 나게 일하였다는 말씀을 덧붙였다. 현성 스님은 63년에 출가하여 약 40년 세월동안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기 때문이란다. 지금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이며, 한국 청소년학회 이사장인 스님은 어떤 일보다도 인재불사를 우선시한다.

“청소년은 불교의 기둥이요 희망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은 불교의 등불행사를 할 희망인데 정성을 쏟아야지요. 청소년들에게는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큰 그릇이 되는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가 해내어야 합니다.”

청담 스님의 상좌인 스님은 은사스님 모시고 시래기죽을 먹고 살면서 하루에 나무 넉 짐씩 해다 나를 때가 그래도 가장 좋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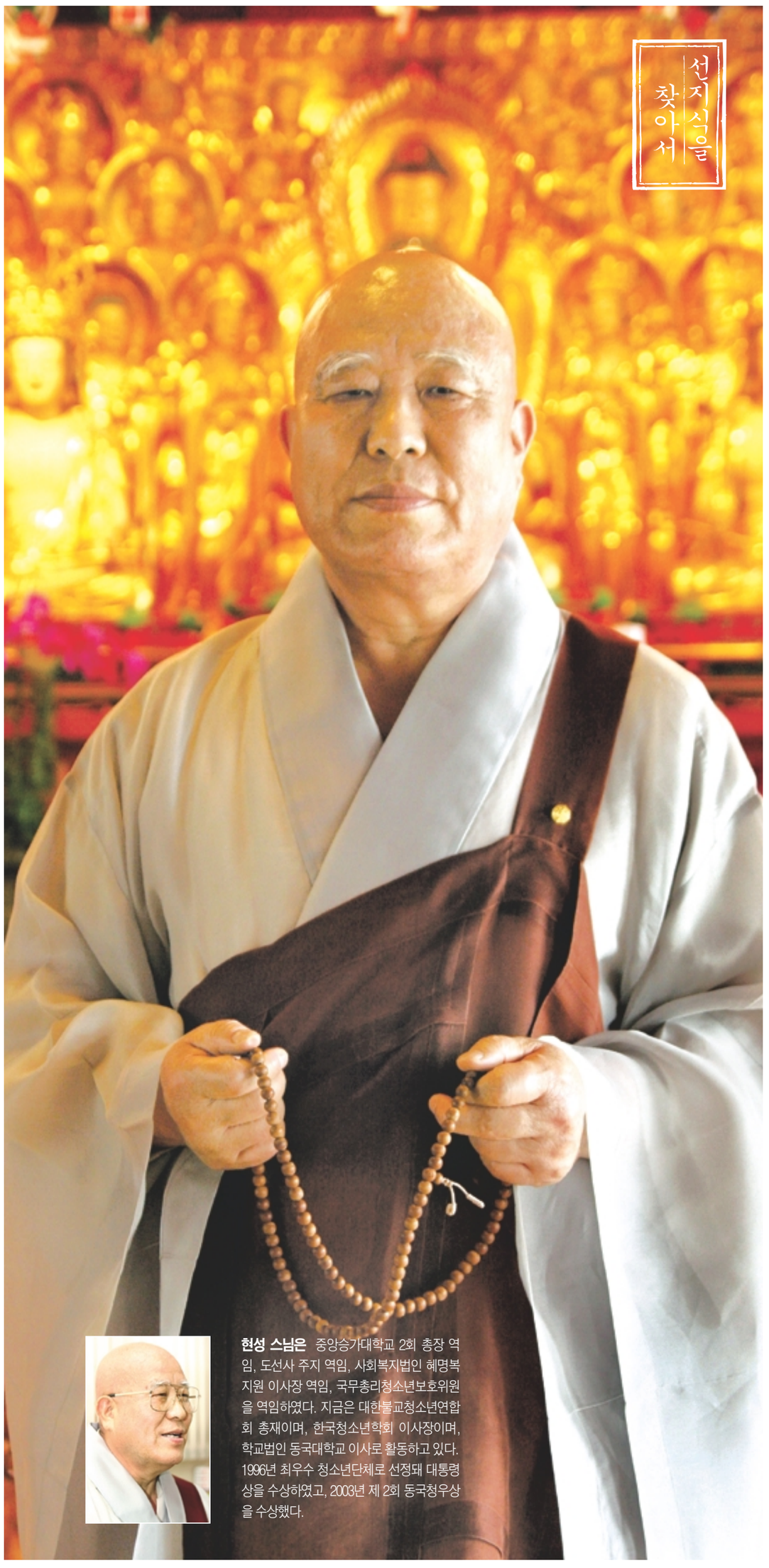
“청담 스님이 몸이 아파 한쪽으로 풍이 왔어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내가 우이동까지 마대포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하루는 깔딱고개에서 쉬고 있는데 청담 스님이 ‘내가 불교 정화한다고 원결을 맺은 사람이 더러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 나를 때린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물었어요. ‘아니 스승이 맞고 있는데 가만있을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때려주어야지요’하고 대꾸했더니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중이 아니다. 너는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있거라.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악연이 있어 내가 당하고 있는데 너는 나설 이유가 없다. 앞으로 큰 중노릇하려면 남에게 좀 지고 살아야 한다. 지는 순간은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승리하는 그 도리를 알아야 한다.’ 청담 스님의 이 말씀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받들고 있어요. 남한테 좀 지고 살면 세상에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좀 지고 산다는 것은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이다. 평생을 두고 쌀을 보시하여 ‘백미스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스님이야말로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을 몸소 실천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스님은 ‘지금 여기에’ 살 것을 강조하신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현재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는 버릇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현성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현성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2회 총장 역임, 도선사 주지 역임,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이사장 역임,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을 역임하였다. 지금은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이며, 한국청소년학회 이사장이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1996년 최우수 청소년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2003년 제 2회 동국청우상을 수상했다.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용성 스님 (4)

용성 스님,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창수 수좌, 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

용성 스님, 그렇다. 그렇다.

창수(昌洙) 수좌가 망월사에서 용성 조실께 삼배를 드리고 꿇어앉자마자, 용성 스님이 물었다.

"십마물(什麽物) 임마래(恁麽來)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는 물음이다.

이에 창수 수좌는 주먹을 불쑥 내밀며 아뢰었다.

"임마물(恁麽物)이 여시래(如是來)니다."

'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는 대답이다.

용성 스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여시 여시(如是如是)니라."

'그렇다 그렇다' 하는 긍정의 표현이다.

잠시 후, 용성 스님은 붓을 당겨 창수 수좌에게 인곡당(仁谷堂)이라는 법호와 함께 '인곡당 창수 장실에 보임(示 仁谷堂昌洙 丈室)'이란 전법게를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써내렸다.

"어진 마음이 천지를 감싸안으니(人心抱天地)/ 깊은 골짜기 또한 밝고 밝도다(玄谷又明明)/ 온갖 조화가 이에서 일어나니(造化從斯起)/ 영원토록 생멸하지 않도다(亘古不生滅)."

인곡(1895~1961년) 스님은 23세에 사교입선(捨敎入禪)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자(無字) 화두와 씨름한 지 9년만에 용성 스님의 인가를 받고 입실제자(入室弟子)가 된 것이다.

위 문답에서 용성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한 질문은 육조혜능 스님이 남악회양 스님에게 던진 공안과 같다.

이 질문에 회양 스님은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여 인가를 받았고, 인곡 스님은 "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답하여 인가를 받았다.

회양 스님과 인곡 스님의 대답은 서로 다름에도 똑같이 인가를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 뭣고?' 화두의 대상인 '한 물건(一物)'은 시간과 공간, 생과 사를 초월한 '그 무엇(거시기)'이기에 뭐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맞지 않지만, 이름 붙이지 않고 쓴다(作用)면 또한 '거시기' 아닌 적이 없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보고 듣고 쓰는 그 모든 것이 '거시기'이지만, 깨닫지 못한 이에게는 '그 무엇'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는 것이다.

화두의 대상인 '한 물건(一物)'은 시공과 생사를 초월한 '그 무엇' "이 무슨 물건인고, 의심해 보라"

모기 주둥이처럼 공안에 들이대는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한 물건'에 대한 용성 스님의 법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있는 힘껏 참구해 보자.

"이 물건은 육근(六根)으로 이뤄진(構造) 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상관 없이 항상 있으며, 공(空)하고 공하지 않은 것에 상관 없이 항상 있다. 허공은 없어져도 이 물건은 없어지지 않는다. 밝은 것은 무량한 일월로도 비준할 수 없고, 검은 것은 칠통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참으로 크도다. 천지세계와 허공을 다 삼켜도 삼킨 곳이 없다. 참으로 작은 것이다. 가는 티끌에 들어갔으되, 그 티끌 속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하고 단지 의심하여 불지어다."(수심정로)

김성우 객원기자

도심 선원에 재가 '수행붐' 일으킨다

서울 봉은사 봉은선원 하안거 결제 맞아 정진 '고삐'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좌), 용상방을 작성하는 결제 대중들.

"이와 같이 능히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또렷이 보고 있으니, 이것이 어떤 물건인고?"

불기 2551년 하안거 결제일인 5월 31일, 서울 강남 봉은사 법왕루. 5백여 사부대중이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어떤 놈인가?'를 묻는 것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100일 후 해제 때는 분명히 보고 들을 줄 아는 이 '한 물건'에 대해 대답하는 대중이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다시는 이 주지가 법석에 올라 이런 질문을 못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인고?

이 날은 수좌 출신의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로 부임한 뒤 중창불사 1000일기도 정진에 들어간 지 178일째 되는 날. 그동안 봉은사는 서울 강북의 조계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강남의 불교문화포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선종 수(首)사찰'이란 이름에 걸맞는 선풍(禪風)을 드날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명진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사찰 수행풍토가 크게 바뀌고 있다. 지난 해 3월 21일부터 석 달간 열린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의 '간화정로(看話正路) – 간화선을 말한다' 주제의 참선법회에 연인원 4000여 명이 동참하는 등 선(禪)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봉은사에서 첫 하안거를 맞는 명진 스님이 '이뭣고 화두'를 주제로 결제법문을 하면서 더욱 정진의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특히 이날 하안거 결제법회가 끝난 후 봉은사의 고요한 경내에 자리 잡은 봉은선원에서는 선감(禪監) 성묵(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과 선원 대중들이 현판식을 갖고 하안거 결제를 맞는 각오를 다졌다. 봉은사에 시민선원에 문을 연 것은 지난 2003년 11월, 지난 해 10월에는 시민선원을 확대한 수련원이 문을 열었지만 '봉은선원'이란 명칭아래 좀 더 체계적인 재가 선원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결제 첫날을 맞은 봉은선원은 새로 방부를 들이는 몇몇 불자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며칠 동안 6명의 불자가 새로 입방을 신청해서 결제 대중은 모두 58명이 되었다. 대부분의 대중은 이미 몇 달간의 정진을 이어온 불자들이기에, 이날 방부를 들인 회원들은 선감실에서 면접을 해야 했다.

"거사님, 법명은 무엇인지요?"

"무여(60)라고 합니다."

"거사님, 들고 계신 화두는 있습니까?"

"아직 마땅한 화두가 없습니다."

"거사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니, 오늘은 특별히 주지스님이 직접 화두 간택(簡擇)을 하시도록 따로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심과 묵언 · 화합 '명심'

선감 스님은 새로 방부를 들인 한 거사를 면담하면서 봉은선원의 청규(淸規)도 자세히 일러준다. "하심과 묵언을 원칙으로 하며 큰방에 단 한명이라도 정진중이면 복도나 각 방에서 잡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임자스님 외에는 타인의 장 · 단점을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화합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신입 회원들이 면담을 끝내고 옷을 법복으로 갈아입은 후 선방으로 들어가자, 어느덧 시간은 오후 1시. 선방에는 결제 대중이 모두 참석, 선감 스님의 주재 하에 용상방(龍象榜: 절에서 불사 또는 안거 시에 각자의 맡은 일을 써서 붙이는 안내문)을 짜기 시작했다. 회주 종범 스님, 주지 겸 선원장 명진 스님, 선감 성묵 스님 이하 청중(淸衆) 법원(60) 거사 등 재가 대중의 소임도 자발적으로 정해졌다. 성묵 스님은 "안거가 끝날 때까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자는 목적에서 만드는 용상방은 중국에서 백장(百丈) 스님이 처음 실시했고, 우리나라에는 선종이 들어오면서 함께 전래되었다"면서, 선원 청소나 잡초 뽑기와 같은 울력도 모두 수행의 연장임을 강조했다.

용상방을 짠 후 잠시 휴식 시간에 신입 수행자들은 구참 선배들과 함께 장려자각 선사의 <좌선의(坐禪儀)>를 함께 되새겨 본다.

도반끼리 격려하며 정진

"그대는 온갖 반연(攀緣)을 놓아버리고 모든 일을 쉬어버려서,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움직이고 머무름에 끊어짐(間斷)이 없게 하라…몸의 자세를 잡고 호흡을 고른 다음에는 배와 배꼽을 느긋하게 하여 일체의 선악을 생각하지 말되, 생각(망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릴 것이니, 알아차리면 바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오래오래 반연을 잊고 닦아 나가면 저절로 한 덩어리를 이룰 것이다."

좌선 시 앉는 법, 호흡법 등은 익히 알고 있던 터이지만, '좌선의 요긴한 비결'이란 대목에서는 반복해서 읽으면서 더욱 정진의 자세를 가다듬는다.

법수선원, 황대선원, 해동선원 등에서 수행했던 참선 경력 40 여년의 광덕행(84 · 강남구 대치동) 보살은 후배들의 사소한 질문에도 정성껏 대답하며 정진을 격려한다.

길상사 시민선방 등에서 정진해 온 덕산(76 · 양천구 목동) 거사는 오후 2~4시 정진 시간에 죽비를 쳐주는 소임을 맡기도 하는 등 구참 수행자들은 말없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성묵 스님은 "도심 속의 고요한 숲속에서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하는 선방을 갖추고 정진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나 자신도 신도들과 함께 정진하면서 포교(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소임)하니 더욱 힘이 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02)3218-4827

김성우 객원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무비 스님 '서장' 대강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은 6월 20일~2008년 3월 19일, 매월 셋째 수 저녁 7시~9시 30분(총 10회) '무비 큰스님의 〈서장(書狀)〉 대강좌'를 연다. (02)2011-1735

●**'좌선의' 강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6월 13일~9월 19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9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좌선의(坐禪儀) 강의'를 진행한다. (02)511-6070

●**우 소다나 사야도 초청 집중수행**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은 우 소다나 사야도(미얀마 마하시 수행센터)의 지도 아래 6월 23~29일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갖는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좌선, 행선, 일상관찰수행과 면담 등으로 진행. (033)644-1686

●**아나빠나삿띠 집중수행** =남양주시 봉인사는 6월 14~18일 4박5일간 김열권 법사 지도로 '위빠사나 및 아나빠나삿띠(부처님 호흡법)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031)574-5585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산촌은 깊은 산속에서 자라나는 야생초인 신선한 야채와 산나물을 사용하여 식도락을 찾는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다양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찰음식전문점 村山

동산불교대학 사찰음식학과장 정산 합장

인사동 본점 02)735-0312 / 경기 고양점 031)969-9865

www.sanchon.com



강화도 전등사 불교 전통 문화체험 템플스테이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 안에 자리 잡은 현존 最古 사찰 전등사는 항몽의 성지이며 병인양요 당시는 프랑스 군과 격전을 벌인 호국 근본도량입니다.
이렇듯 유서 깊은 전등사에서 2007년도 여름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교수행을 겸하는 뜻 깊은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정

차	기 간	모집인원	대 상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비 용
1	7월 2일 ~ 7월 5일(3박 4일)	20명	일반인	전통예절 및 다도	15만원
2	7월 9일 ~ 7월 12일(3박 4일)	20명	일반인	한지공예	20만원
3	7월 16일 ~ 7월 19일(3박 4일)	20명	일반인	서각 및 인경	20만원
4	7월 23일 ~ 7월 26일(3박 4일)	20명	일반인	단청	20만원
5	7월 30일 ~ 8월 2일(3박 4일)	20명	중고생	전통예절 다도/ 단청	15만원
6	8월 6일 ~ 8월 9일(3박 4일)	20명	일반인	생태교실	15만원
7	8월 13일 ~ 8월 16일(3박 4일)	20명	일반인	천연염색	20만원

◗ 모집요강
1. 모집 시기 : 2007년 6월 4일 ~ 각 프로그램 전
2. 모집 인원 : 각 20명 (선착순)
3. 모집 기준 : 전화 신청이나 인터넷 신청은 예약이 되는 것이며 아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입금 순서로 선착순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입금 시 유의 사항 : 입금할 때는 참가 기수와 성명을 함께 적어주시고 전화를 바랍니다.
5. 불참 시에는 각 차수 프로그램 일정 일주일 전까지 전화를 주시면 환불해 드리고, 6일 전 부터는 보시금으로 접수됩니다.
6. 자원봉사자 모집 : 각 차별 5명 모집

◗ 계좌번호 농협 171845-51-006378 (예금주 : 전등사)

대한불교조계종 강화도 전등사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전화 032)937-0025, 0125 / 팩스 032)937-5450

"부정적인 마음이 불행 부른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⑰ 긍정적 마음의 힘

모든 것에 부정적인 마음

H씨는 최근 이사 온 옆집 애기엄마와 몇 번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는 무엇에 대해서든 항상 부정적인 면을 지적해내는 것이었다. 우선 아파트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놓았다.

"다른 아파트보다 평수에 비해서 좁네요. 내부도 뭔가 모자란 것 같고." H씨는 똑같은 평수이지만 특별히 좁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아마 처음이어서 힘들겠지 하며 "그래도 여기는 주변 경치도 좋고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하잖아요"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애기엄마는 "네에? 아니 이게 경치 좋은 거예요? 너무 하시네요. 요즘 전원주택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교통 좋은 곳도 흔하고 흔하잖아요. 그걸 좋다고 하시면 안 되죠." 무안해져서 할 말이 없었다.

남편 직장에 대해서는 "남들은 대기업이면 좋은 줄 알지만 천만에요. 일만 죽도록 시키고 월급은 그에 비하면 택도 없어요. 아유, 직장을 옮기든지 해야지, 아니면 돈 좀 더 모이면 그만두고 우리 사업이라도 해보라고 할까 해요"했다.

위로해주려고 "그러세요. 하긴 아직 젊으시니 얼마든지 직장을 바꾸실 수 있겠네요. 자기 사업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자 애기엄마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어디 새로 받아 주는 데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 봤자 뻔하잖아요. 월급도 거기서 거길 거고. 사업은 아무나 하나요. 속고 당하기 일쑤지요. 괜히 나섰다가 재산 다 없앤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H씨는 속으로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면서' 하고 어이가 없었다. 애기엄마를 만나면 아무리 잠시 얘기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이 빠지는 경우가 없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단점을 지적하였고 불만이었다.

> 매사에 불평만 하는 이웃 통해
> 긍정적 마음의 중요성 깨달아…
> "힘들수록 더욱 자비심 키워야"

마음의 입력과 출력

H씨는 어느 날 애기엄마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부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을까, 무슨 인연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매사에 부정적이니 이제는 그를 멀리서 보거나 마주치게 되면 벌써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에서부터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다. 피하고 싶어졌다. '아마 애기엄마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없을 거야.'

문득 애기엄마가 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자기 가족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할 것이 틀림없었다.

지금까지 예외인 사람이 없었는데 나라고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갑자기 애기엄마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만하면 모든 면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나 감사, 행복을 모르고 있다. 누구보다 불행한 것이다. 더구나 남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구업(口業)을 짓고 있는 셈이니 더욱 큰 일이 아닌가.

H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많이 반성해 보게 되었다고 한다. 곰곰이 살펴보니 불평이나 비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다른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쾌하고 아팠을까 하고 공감이 되었다.

웃을 일이 생기려면

참회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 많은데 굳이 어두운 마음으로 지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보니 애기엄마가 역행(逆行)보살로 나타나서 저의 스승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긍정적인 마음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알게 되었어요"하며 환하게 웃는다.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에 따라 말과 태도, 행동도 부정적이 된다. 마음에 따라 언행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도 달라지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밝고 긍정적인 마음, 자비심의 힘으로 무장해 보면 어떨까.

산앵게시판

●**조계사 대웅전 24시간 개방**= 조계사가 6월 15일(음력 5월 초하루)부터 대웅전을 24시간 개방한다. 저녁 6시 저녁 예불 및 소참법문, 저녁 8시~밤 9시 50분 다라니기도(신묘장구대다라니)와 축원, 밤 10~11시 50분 석가모니불 정근 100일 기도와 축원, 밤 12시~새벽 1시 50분 석가모니불 정근 100일 기도와 축원, 새벽 2~3시 50분 석가모니불 정근 100일 기도와 축원, 새벽 4시 새벽예불로 진행된다. 15일 입재하는 석가모니불 정근 100일 기도가 끝나면 약사여래불정근, 아미타여래불정근 기도를 연이어 100일씩 총 1000일 동안 철야기도를 진행한다. 토 · 일요일도 평일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야간 개방한다. (02)732-2187

●**도선사 108사찰 순례**=서울 도선사가 6월 108사찰 성지순례를 양양 낙산사로 떠난다. 20~23일 낙산사에서 진행되는 108사찰 성지순례의 테마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이다. 테마에 맞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02)993-3161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총동문회**=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출신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22~24일 월정사에서 열리는 이번 총동문회는 2박3일간 108참회 좌선, 전나무 숲길 포행, 울력, 상원사 적멸보궁 참배, 산행, 총동문회 회칙 개정 및 향후 사업 일정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033)332-6661

●**남해 용문사 템플스테이**=남해 용문사가 6월 23~24일 행복을 그리는 템플 14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새벽예불과 참선, 숲길 산책, 울력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 (055)862-4425

●**용주사 여름 효행수련회**=화성 용주사가 2007 용주사 여름 효행 수련회 일정을 발표했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여름 효행 수련회는 7월 말 8월 초에 개최된다.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수련회는 7월 26~28일 열린다. 성인 50명이 참가할 수 있는 2차 수련회는 8월 2~4일, 청소년 50명이 대상인 3차 수련회는 8월 9~11일 열린다. 선착순 마감. (031)234-0040

부처님 감사합니다

보고픈 어머니께 (상)

전우경 무안 교도소

어머님! 간밤의 꿈에 뵈었습니다. 까만 밤하늘의 별들도 조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한 겨울제비 같은 몰골로 낡은 사립문 앞으로 서성거릴 때 낙엽을 울리는 바람 소리처럼 아니 들리듯 들려오는 어머님의 음성. 눈물 젖은 애절한 기도소리가 들리었습니다.

삼십년 전 여윈잠 뒤척이며 첫 새벽 비몽사몽간에 듣던 그 애절하고도 간절한 기도 소리를…. 어머님, 어젯밤에는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끊일 듯 이어지는 간절한 기도소리 따라 허물어진 담장을 돌아 기도소리 가까운 담장 뒤에 숨어서 장독대에 꿇어앉으신 작아진 어머님의 모습을 뵈었습니다. 개다리소반 위 정화수에 비춰진 별빛보다 더 파리한 처연토록 야윈 얼굴에 흰 머리카락.


그림: 문병성

"남들 눈에 한 송이 꽃이 되게 하여주시고, 부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손이 닳도록 빌고 비시던 옛날 그 지극한 정성의 이령수 소리.

"가엾은 제 자식에게 십오 척 높은 담장을 날아 넘을 수 있게 잠자리 날개라도 하나 달아 주옵소서."

눈물인 듯 통곡인 듯 애절한 기도소리. 서럽도록 반가운 마음.

> 언젠가 돌아올 못난 자식 기다림에
> 해질녘 동구밖 길 서성이실 어머니…

그러나 "어머님!" 하고 차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의 제가 아닌 제가 어머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한 줌 재가 되어 허물어지고 말 것 같은 어머님이기에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님의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소리에 별들도 흐느끼는 새벽어둠이었건만 모든 걸 쓸어내리는 까치소리에 소스라쳐 눈을 뜨니 창살 너머 하늘빛이 어머님 눈시울처럼 붉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 생각만 하면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당신은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좋은 것으로만 먹이시고 입히시던 어머니. 즐거울 때나 기쁠 때는 까마득하게 당신을 잊고 있다가 괴로울 때 슬플 때 위험에 처할 때 비명처럼 당신을 찾으면 언제나 불원천리 맨발로 달려오시던 어머니.

언젠가 돌아올 못난 자식 기다림에 해질녘 동구밖 길을 서성이실 어머니. 노송가지 사이로 떠오르던 보름달 같으시던 어머니. 마당가 복숭꽃처럼 곱디고운 그 얼굴에 어느 새 저승꽃이 만발해지고, 꾀꼬리가 시샘할 만큼 낭랑하시던 그 목소리는 어느새 섣달 삭풍에 우는 문풍지가 되시다니요.

돌아가야 할 고향을 두고 밤새워 기다리시는 어머님을 두고 돌아갈 수 없는 자식의 마음은 성터에 뒹구는 낙엽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그러나 어찌 자식 기다리는 어머님의 마음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마다 꿈마다 어머님이 그리워 햇빛 밝은 날이면 그림자 되고, 달 밝은 밤이면 별빛이 되어 어머님의 창가에서 서성입니다.

그러나 어머님, 한으로 응어리진 어머님의 마음 뜨거운 눈물로 풀어 씻겨 드려야 할 육신은 여기 이렇게 꿈이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먼 나라에 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목숨을 잃는 만큼 불탄 날개에 깃털이 돋아나지만 겨울이 오고 봄이 또 오면 창공을 날아오를 희망보다는 어머님 늙어가심이 더 초조하고 슬퍼지는 마음 어찌하옵니까.

어머님 밤마다 당신과 함께 별을 헤던 보랏빛 하늘 가득히 길고 서러운 편지를 쓰면서도 쓰는 대로 다 부치지 못하는 까닭은 편지받아 읽으시는 어머님이 저보다 더 슬퍼하실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못난 자식에게 답장 쓰시려고 뒤늦게 깨우친 서투른 글씨로 밤을 지새우며 답장 쓰실 어머님이 도수 높은 안경 너머로 방울방울 흘리실 피보다 더 진한 눈물은 저의 꿈 속 같은 곳까지 붉게 물들이는 까닭입니다.

어머님께선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흠뻑 담아 제게 편지를 보내 주십니다. 손이 떨려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건강하냐, 밥은 잘 먹냐, 어디 아픈 곳은 없고? 면회 자주 못가서 미안하다"는 등 언제나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쓰신 편지를 볼 때면 눈가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슬픔이 밀려옵니다.

새벽닭이 울면 일어나 따뜻한 밥을 해 주시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남모르게 뒤뜰 장독대 위에 정화수 떠놓고 빌고 비시던 나의 어머니. 어머니께 자식 된 마음의 정을 나누어 드리지도 못하고 나 혼자만 즐기며 살아온 지난날들…. (계속)

충청매일 · 옥천 대성사 주최 '수용자 효 문학작품' 공모 효 편지 우수상 수상작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워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 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염주는 인도에서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컷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 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 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100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7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재화막는 삼고금강저!



닥쳐올 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란 음양오행에 의해 세상사는 동안 일정한 기간에 액란과 환란이 오는 시기를 말한다. 삼재에는 드는삼재, 묵는삼재, 나는삼재 각 1년씩 3년동안 수.화.풍으로 큰화를 당할수 있다는 뜻으로 불가에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의식으로 매년 입춘날 대부분 사찰에서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드린다. 삼재에는 나이에 따라 일반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다. 삼재가 든 사람들 중에는 하는일 마다 일이 안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제물손실이 계속되고 뜻하지 않는 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고통이 오지만 삼재라 하여 삼재가 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 중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삼재를 완벽하게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환란을 모면하게 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닥쳐올 화를 미리 막아주며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가로 5cm 폭 2cm로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된다.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 예방과 닥쳐올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가격 38,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달수 있다.
전화(02)741-4477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정해년 새지갑으로 사업성공! 평생부자!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 이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도심 산사의 시원한 산바람 귓가에 흐르는 감미로운 선율

이것이 바로 '산 교육'

보리공부방 30여명 아이들 방과후 배운 타악기로 공연
신나는 풍물놀이 장단에 어른들 '잘한다~' 환호성 물결
서양음악과 국악의 만남 · 거문고 설명 등 음악 교육도

서울은 참 복잡하다. 한낮에 서울 큰 길을 걷다보면 빵빵거리는 자동차 소리만 가득한 것 같다. 하지만 서울에는 좋은 산을 끼고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동네, 또 그런 동네에 자리 잡은 사찰도 꽤 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금장사가 바로 그런 곳 중 하나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자연 속으로 빠져든 절, 그곳에서 6월 2일 저녁, 작은 '축제'가 열렸다. 금장사 보리방과후 공부방(이하 보리공부방) 아이들과 함께한 '초여름 산사음악회'다.

음악회? 왠지 어렵고 불편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청중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라도 괜찮다. 객석은 흙바닥과 풀밭 위에 깔아놓은 자리다. 시원한 산바람과 함께 기분 좋게 흘러가는 음악을 온몸으로 맞아들인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나와 가끔은 떠들기도 하는 음악회. 금장사 음악회는 바로 그런 편안한 음악회였다.

"자, 여러분 차례니까 지금까지 연습한 거 잘 보여줍시다!"

작은 음악회 문을 연 공연은 보리공부방 아이들 30여명이 참여한 우리 타악기 공연이었다. 보리공부방 아이들을 지도해온 효석 스님이 아이들을 챙기며 힘찬 응원과 함께 아이들을 내보냈다.

공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각자 손마다 든 장구며 징, 소고를 배운 대로, 정성껏 흔들고 두드렸다. 아이들은 이날의 공연을 위해 자그마치 6개월 넘게 연습해왔다. 장구의 경우 꽤 무게가 나가서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용하다. 설마 우리 아이가 저렇게 잘할 줄이야. 객석에서는 온통 '우리 ○○ 잘한다~'며 아이들의 솜씨를 보고 흐뭇해하는 어른들의 환호성 물결이다. 물론, 아직은 서툴다. 그냥 두드리면 될 것 같아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풍물놀이니까.

보리공부방은 이미 홍은동에서 인정받고 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학교를 마치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잡아주고 보듬어주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보리공부방에서 조금씩 연습한 성과가 이날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니 홍은동에서 이곳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진 순간이다.

그렇게 타악 공연을 마친 아이들의 얼굴에는 보람찬 미소가 가득했다. 조금 더 잘 할 걸,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섞여있었지만 다들 열심히 했다. 지켜보던 주지 본각 스님을 비롯한 금장사 스님들의 눈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아이들에 이어 산사음악회를 꾸려간 사람은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 언젠가 홍은동 마을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꼭 한 번 연주회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던 강 단장은 바이올린, 첼로, 건반의 3중주를 준비했다. 서양악기에 서양음악이 절과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이미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음악은 산사의 어스름한 밤을 수놓았다.

산사음악회에 또 우리 가락이 빠질 수 없다. 거문고와 대금 2중주다. 신기한 듯 쳐다보며 거문고인지 가야금인지 헛갈려 하는 아이들을 위해 거문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것이 바로 '산' 음악 교육이다.

"거문고는 줄이 6줄이에요. 그리고 악기에는 음정을 낼 수 있는 '괘'라는 것이 있고요, 연주 할 때는 손가락이 아닌 '술대'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날이 어두워지자 관객들의 손에 있던 반딧불 전등에 하나 둘 불이 켜졌다. 모두 반딧불이가 된 것이다.

음악회의 마지막은 '화합'의 장이었다. 강형진 단장이 동요와 대중가요를 연주하자 객석에서는 모두 노래를 따라 불렀다. 신나는 연주와 신나는 객석. 때이른 더위를 잊고 온가족이 함께 즐겨서 그런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보리공부방에 다니고 있는 은경이(홍연초 5)는 공연 내내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원래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은경이 같지는 않았다. 간간히 스님들이나 강형진 단장이 주의를 주어야 할 정도로 산만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아이들에게 올바른 음악 감상 태도에 대해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랬기에 이날 금장사에 있었던 아이들은 즐겁게 기억할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공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느낀 산사의 어느 날을 말이다.

초여름, 산사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빛나고 있었다.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갈고 닦은 소고춤을 공연하는 어린이들. 사진제공=금장사


니르바나 강형진 단장이 선사하는 국악과 양악의 만남.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는
만2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숲속놀이터'가 진행되고 있다. 바람놀이터, 숲속극장, 흙놀이터, 물놀이터 등 네 가지 테마방으로 꾸며져 있어 우리에게 낯익은 자연과 문화의 감성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8월 26일까지.(02)3455-9271

서울 봉은사에서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주최로 '제3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가 열린다. 기간은 6월 16일~17일이며 재미있는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댄스, 마임, 찬불가 및 율동을 배울 수 있다. 선착순 150명 모집.(02)738-7860

강원도 철의삼각지 전적지에서는
6월 23일 철의삼각지 현장체험 탐방이 있을 예정이다. 철의삼각 전적지는 6 · 25전쟁 당시 중부 전선의 전략적 요충지로, 민간인 출입이 허용되면서 6 · 25의 참상을 보여주는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ihwarang.or.kr).(02)2235-2673

전남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6월 14일~16일까지 '제9회 예쁜엽서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 동부지역의 초 · 중 · 고등학생의 참여로 이루어진 예쁜 엽서 공모전에서 입상한 예쁜 엽서작품전시회, 청소년들의 명랑하고 건전한 가치관이 담긴 예쁜 엽서들을 감상할 수 있다.(061)753-9106

부산박물관에서는
부산-상하이 수교 14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로 상하이박물관 소장 '중국 고대 청동기 · 옥기'전이 열린다. 기간은 6월 15일~9월 9일이며, 중국 고대(BC4,000 ~ AD220) 청동기 및 옥기 95점이 전시된다. (051)624-5343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고 만행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분가분 : 말이나 행동 따위가 매우 가벼운 모양. 가분가분히.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공주의 걸음걸이와도 같이 가분가분 걸어오는 눈이었다.' (정비석<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가탈걸음 : 말이 불안정하게 비틀거리며 걷는 걸음.
아버지가 "그 말 잘 가더냐?"하고 묻기에 우길이는 "그놈의 말 가탈걸음만 치고 틀렸어"하니까…(한설야<탑>)

가다귀 : 참나무 따위의 잔가지로 된 땔나무. '마른 가다귀로 불을 지피니 불이 금방 붙 었다.'

촌닭 : 좀 어수룩해 보이는 시골 사람이 큰 도시에 오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된다. 그 모습이 마치 시골 닭이 기웃거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촌스럽고 어수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촌닭'이라고 한다.

숙제 : 원래 옛날 서당에서 시회를 열기 며칠 전에 미리 내준 시나 글의 제목. 그런데 서당이 없어지고 학교가 생겼으니,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물을 숙제라고 하게 된 것. 그것 말고도 두고두고 생각해 볼 문제 거리를 숙제라고도 한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주체적인 삶 살고자 한 노라에 박수를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입센作 '인형의 집'

만약 여러분에게 인형의 삶을 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아내이자 어머니일 뿐일까요? <인형의 집> 주인공 노라는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전에 자신은 떳떳한 인간, 온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란 걸 자각하게 되지요. 인간으로 주체적 삶을 살아가고자 한 노라를 만나며 노라에게 박수를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여러분은 어떨지요? 여성 남성 이전에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입센은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19세기 극작가로 <인형의 집>은 1879년 독일에서 쓰여 진 3막극으로 입센의 희곡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죠.

변호사 헬메르의 아내 노라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은 새해에 은행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노라는 이미 아이가 넷이나 되면서도 아직 아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여 남편으로부터 항상 <귀여운 종달새>라고 놀림을 받는다. 그러나 노라에게도 크나큰 비밀이 있었다. 신혼 당시 남편이 결핵으로 전지요양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노라는 남편 몰래 돈을 빌렸는데, 그것은 당시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여 얻은 것이었다. 그 후 노라는 내직을 하기도 하고, 남몰래 돈을 모으기도 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아 가는 데 쫓기고 있었다. 노라는 남편에게서 용돈을 많이 얻어 내 그것으로 빚을 갚아 나가고 나중에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작정이었다. 한편 고리대금업자인 크로그스타는 남편과 같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편 헬메르는 은행장 취임을 계기로 그를 해임하려고 하지만, 크로그스타는 노라의 위조 서명을 문제 삼아 오히려 남편을 실직시키겠다고 노라를 위협한다. 결국 이를 알게 된 헬메르는 노라를 심하게 꾸짖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만을 두려워하여, 사회적 체면 지키기에만 급급해 한다. 노라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책임을 져주기를 기대했지만, 남편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여서 노라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추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사회의 관례에 준하는 사건으로 취급하려고 들었다. 한편, 아이들의 교육을 그런 여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건은 반전되어 크로그스타가 차용증서를 되돌려 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헬메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미 남편의 이중성에 분노와 염증을 느낀 노라는 아내가 되기 이전에 책임 있는 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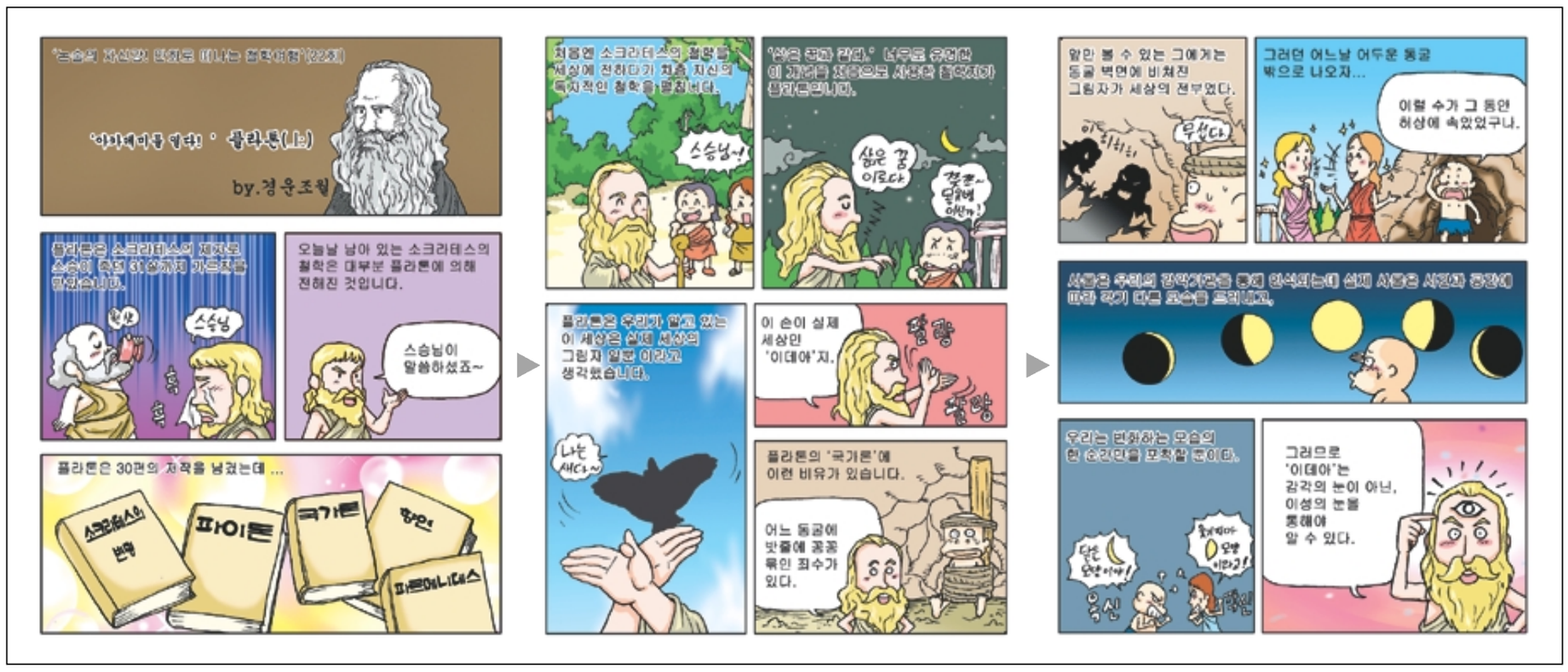
노라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있어서는 외견상의 사회적 지위나 그 체제가 더 중요했으므로 두 사람의 의견은 크게 벌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노라는, 그녀가 생각하고 있던 애정과 부부 생활에 대한 모든 구속을 떨쳐 버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남기고 집을 나간다. 인간이 아닌 귀여운 인형으로만 보는 남성들과 기존 사회의 편견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중심 테마는 노라의 가출 여성 해방 대담하게 다뤄

<인형의 집>은 19세기 후반에 많이 논의된 여성해방문제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어요. 이 희곡의 중심 테마는 노라의 가출이지요. <인형의 집>은 아내이고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겠다고 부르짖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 노라의 인간적 각성 과정을 그려 내고 있지요. 가정에서 억눌려 있던 여성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을 것 같지요. 여성 해방의 문제를 대담하게 다루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니까요.

남편과 자식을 버리는 그녀의 결심은 헬메르가 크로그스타에게서 온 두 통의 편지를 읽을 때 굳혀지지요.

노라는 부모 밑에서는 어린이 인형, 남편 밑에서는 아내 인형이라는 데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며,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의무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우선한다고 생각하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 친구가 가출 했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가출을 했어요. 저와 친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가출하다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D:걱정이에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려는 태도가 필요

친구가 집을 나가서 우리 친구도 충격이 클 거예요. 나름대로 친한 친구라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서 연락도 없으니 말이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먼저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집을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청소년 여러분은 종종 자기의 내부세계에 몰입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끊거나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답니다. 말을 하지 않거나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가출한 청소년들은 가족보다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그 동안 친구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되, 섭섭한 마음보다는 친구를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거짓 없이 전달하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 어디 있느냐는 말이나 거기서 뭘 하느냐는 말보다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무엇보다 우리 친구가 그 친구를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고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오면 이제부터는 그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하세요. 무슨 일이건 자기 탓을 하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지도 몰라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친구, 무엇보다 그 친구와 함께 마음을 솔직히 나누려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다시금 짚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전국청소년사이버상담실)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문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덩어리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흔들림 없이 정진하라, 행복의 문 열릴지니…"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이 전하는 '성공하는 삶'의 지혜



정진 행복을 부르는 힘
지광 스님 지음
랜덤하우스 펴냄 | 1만2800원

도심포교의 새 역사를 써 온 지광 스님(능인선원장 · 사진)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정진 행복을 부르는 힘>(이하 정진)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수필집인가? 법문집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광 스님은 "수필로 읽으면 수필집이고 법문으로 읽으면 법문집"이라고 답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다 법문이라는 것이 지광 스님의 입장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다 부처님이라는 것도 지광 스님의 신념이다. 지광 스님은 종교적 숭고함과 생활인의 바닥정서를 둘로 보지 않는데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진>은 모든 성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고한 교훈이고 그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다 깊은 근원에 닿아 우주적 진리를 전하는 힘찬 메시지임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적당히 경전을 인용하여 바른생활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글은 아니다. 성현들의 말씀과 경전의 여러 일화들을 적절히 소개하며 '정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다. <정진>은 지광 스님이 수행자의 위치에서 대중을 향해 목 깊은 울림으로 토해내는 삶의 나침반이다.

독재의 시절, 해직 언론인으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불교로 귀의한 뒤 서울의 강남에서 방석 몇 개 들여 놓을 정도의 공간에서 시작한 포교. 그 때부터 도심 대형 사찰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지금의 능인선원까지. 지광 스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불자들과 함께 새벽 예불을 모셨고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가리지 않고 빡빡한 강의 일정을 소화해 냈다. 그리고 매일 수 십 명의 불자들과 대면해 각종 상담을 하고 다양한 포교 사업들을 진두지휘 해 왔다.

그런 가운데 지광 스님이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쁨도, 고난도, 타종교인의 해코지도, 병고와 절망까지도 모두가 지극한 스승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모셔져 있는 부처님만 확실하게 믿으면,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삶을 지속한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불자들에게 힘차고 용기 있는 삶, 건강하고 성공하는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 모든 정열을 쏟았다.

지난 24년간 포교 현장에서 틈틈이 메모해 둔 상념과 얘깃거리, 누구에게든 꼭 해줘야 할 말들을 고르고 골라 묶은 것이 <정진>이다. 지광 스님에게는 그런 메모지가 2만여 장이나 있다. "몸을 낮추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시대



언어를 도외시하는 것도 고립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책을 내게 됐다"는 지광 스님은 "대중의 삶에 직접 뛰어들어 가장 편안한 대중의 언어로 가장 숭고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포교도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지광 스님이 전하는 '성공하는 삶' 혹은 '깨침의 삶'의 키워드는 두 가지. 신심과 정진이다.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지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스님은 "투철한 신심을 바탕으로 끊어지지 않는 정진의 힘이 나오는 것"이라 설명한다. 스님 자신이 강남에서 포교의 새로운 역사를 쓴 힘 역시 신심과 정진이라는 두 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제 지광 스님의 신심과 정진의 무대는 세계를 향하고 있다. 스님은 미국 뉴욕에 대학을 설립하고 있다. 이 대학을 기지로 하여 미국 포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 지역에도 포교 거점을 마련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강연 여행을 다닐 계획이다. 지광 스님은 달라이라마나 틱낫한 스님 이상의 포교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우리 불교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계인을 한국불교 신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직접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뚫고 세계인의 생활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지광 스님의 신념이다.

<정진>은 지광 스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내 놓는 '목소리'지만 이를 계기로 세계를 향한 전법의 커다란 공명이 형성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지광 스님의 육성설법 DVD도 책과 함께 제공된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마음에 찍는 '쉼표' 하나



마음놓고 쉬는 도리 대우 지음 | 현암사 펴냄 | 1만원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재가 선객으로 꼽히는 대우(大愚) 거사. 20여년의 공직생활을 접고 마음공부에 몰입해 온 대우거사는 서울 현정선원에서 7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수행과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우 거사의 가풍은 어떤 걸까? 특별하지 않다. '네 본래의 성품 자리를 밝히라'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오늘도 대우 거사의 선실에는 마음을 놓고 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이 법은 쉽다거나 혹은 어렵다거나 하는 이해력의 수준에 따라 가늠되는 법이 아니다. 알고 모르는데 속한 법이 아니니 설사 이해했다 해도 그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차면 차다고 알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가풍에서 나오는 대우 거사의 가르침은 차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다. 대우 거사가 5년 전 재가 선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들과 역대 선사들의 가르침을 요약해 묶었던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현암사)>는 꾸준한 '교과서'였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두고 차다느니 덥다느니 하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쉬는 도리>를 펴냈다.

1부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챙겨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간절하게 소개되고 있다. 2부에 소개된 어느 고덕(옛날에 살았던 덕 높은 스님)이 남긴 '공부십절목'은 다른 곳에서 얻기 어려운 거울이다. 마음공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열 가지로 추린 것이다. 3부에서는 대우 거사가 20년간 받은 질문과 대답들이 정리됐다.

임연태 기자

"禪은 행복을 여는 열쇠"



선의 이야기 타카다 아키가즈 지음 | 김형준 옮김 | 북스타 펴냄 | 1만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누구나 행복하지는 않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서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가지려는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과 버리고 나눔으로써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일 것이다.

세속적 삶은 언제나 갈망하는데서 시작되고 그 갈망은 숱한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 갈등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행복, 순간일 뿐이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다. 탈속적 삶은 자신의 얻음 보다는 남을 위한 나눔을 앞세운다. 구하는 것이 없고 비우는데 익숙한 사람은 늘 행복하고 그 행복은 영원으로 통한다.

의사가 본업인 아키가즈 교수는 일본에서 유명한 건강지킴이다. 그는 많은 강연과 TV 출연을 통해 행복한 삶의 비법을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선 수행을 강조한다.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고 한계를 돌파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야 말로 선의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저서 <선의 이야기>는 막연하게 "선을 닦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통해 마음을 열라"고 외친다. "시시콜콜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는 그의 주장은 오직 '지금 여기서'의 삶에 충실하면 저절로 고요해지는 도리를 역설하는 것이다.

그가 힘주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부처님과 역대 선사들의 '한 마디'를 던지는데서 실마리를 찾고 있다. 선의 가르침 한 대목을 통해 현실적인 삶의 방향과 가치판단의 기틀을 제시하는 게 <선의 이야기>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랑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2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과경	불광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5	염불수행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6	안거	봉문	법보신문사
7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8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9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10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중국인도 보기 힘든 중국 국보展

서울역사박물관 8월 26일까지/대구 계명대박물관 9월 1일부터

불상과 석상, 장식물 등 중국 국보급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인기를 끌고있다. 지난달 23일 개막해 8월 26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서 열리는 '중국 국보전'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 고대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중국 39개 박물관과 연구소에서 '징발' 한 한(漢)-당대(唐代) 문물 총 325점이다. 이중 국보급 유물이 150점 이상이나 되는 등 국내 전시사상 최다규모의 국보전이다. 서울 전시가 끝난 뒤에는 대구 계명대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9월 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계속된다.

전시품으로는 2천년 전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술단지와 그에 담긴 술, 창사시(長沙市) 마왕퇴(馬王堆) 한묘(漢墓, 한나라시대 무덤) 출토 '룽코트'인 자수 견직물 웃옷(사면포), 간사한 사람만 잡아먹는다는 전설의 동물인 동한(東漢) 시대 동물 조각상, 서기 1세기 무렵의 로마 유리병이 포함됐다.

불자라면 관심 깊게 챙겨볼 전시품들도 제법 있다. 우선 제 4전시관을 찾으면 머리에 쓴 보관위에 아미타불을 새겨 넣은 전형적인 관음상인 '관음보살 좌상'이 있다. 조각이 정교하고 사실적이어서 좌상 앞에 서면 마치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외에도 석조미륵불상, 미륵반가상 등은 좀처럼 쉽게 접할 수 없는 국보급 중국 문화재 들이다. (02)3676-7845

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관음보살 좌상'

불교문화재 등 325점 전시

'관음보살 좌상' 살아있는 듯

■ 눈여겨볼만한 국보급 불교유물

▲ 석조미륵불상(하북성 발물관 소장, 북위시대(386~534), 높이 44cm)

머리에는 보관(寶冠)을 쓰고 두건을 둘렀다. 상체는 드러냈으며 구슬 목걸이를 걸었다. 긴 치마를 입은 채 손은 합장했고, 두 마리 사자를 둔 좌대 위에 다리를 교차하고 앉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물 중 가장 오래된 석조불상 중 하나다.

▲ 앉아있는 금동부처(하북성 문물보호중심 소장, 십육국시대(304~439), 높이 214cm)

앉은 부처와 두 제자를 표현한 도금 불상이다. 주존(主尊)은 상투를 높게 틀었으며 용모가 빼어나고 대의(大衣)를 입었다. 또한 가부좌를 틀고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네모난 좌대(座臺) 위에 앉았다. 좌대 밑에 다리가 네 개인 네모난 평상을 놓았다.

▲ <법구경>(감숙성 박물관 소장, 전량시대, 세로 24.9cm, 가로 135cm)

전권 67행이며 매 행마다 각각 16~24자로 짜여 있어 행마다 글자 수가 다르다. 예서체 분위기를 짙게 풍긴다. 책이 나온 시기는 돈황 막고굴(莫高窟)이 건설된 시기와 가깝다.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서 중 하나다.

▲ 한쌍의 미륵반가상(하북성정정현물보관소 소장, 북조시대(550~577), 높이 93cm)

조각과 부조 기법으로 만들었다. 정면에 조각한 두 보살은 나무줄기를 들어 아치 모양으로 서로 연결했으며, 그 안에는 쌍미륵상이 반가부좌를 틀고 대칭으로 앉았다. 양쪽에는 협시(脇侍) 보살이 섰다.

▲ 채색을 한 입상(산동성 임구시 박물관 소장, 북조시대(550~577), 높이 44cm)

파도 모양의 머리카락에 낮은 상투를 틀었다. 두 눈은 살짝 감았으며 검은색 눈썹에 입술은 붉고 코끝이 작으며, 검은색으로 작게 '팔(八)' 자 모양의 수염을 그렸다. 이 불상은 북조 시대 석상 가운데에서 종교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빼어난 수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보관위에 아미타불이 있는 관음보살(서안비림박물관 소장, 당나라, 높이 75cm)

머리에 쓴 보관 위에 아미타불을 새겨 넣은 전형적인 관음상이다. 보관의 양쪽에는 각각 띠를 하나씩 어깨 위로 드리웠다. 손에 연꽃 봉오리를 든 보살의 모습이 마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듯하다.

▲ 서 있는 보살상(하북성박물관, 당나라, 높이 158cm)

머리와 왼팔, 오른손은 파손되었다. 보살은 어깨가 넓고 가슴이 풍만하며 허리는 가늘고 배는 약간 나왔으며 연화대(蓮花臺) 위에 맨발로 섰다. 상체는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 'S'자 형이다. 긴 치마를 입었다.

염불 편곡한 '나무아미타불' 등 선사

범능 스님, 16일 조계사 공연



승려가수 범능 스님(사진)이 서울 첫 나들이 공연에 나선다.

범능 스님은 6월 16일 서울 조계사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황금을 우박 같이 쏟아 부을지라도' 라는 주제로 첫 단독공연을 갖는다. 주제는 물질만능 시대를 돌아보며 바른 삶의 이정표를 함께 세워가자는 의미로 <법구경 불타품>에서 따왔다.

범능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 '먼 산' '바람이 오면' '무소의 뿔처럼' '나무아미타불' '푸른 학으로' 등 14곡을 부를 예정이다. 이중 염불을 편곡한 '나무아미타불'은 신부와 목사 등 타종교 성직자들도 기도전 즐겨 들을 정도로 내적인 평안함을 선사해 준다.

전문 음악인으로 손수 편곡까지 도맡아 하는 범능 스님은 대중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노래로 한국 불교음악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다. (061)372-5521

김주일 기자

'발굴에서 전시까지' 특별展

사찰과 왕궁 등에서 발굴된 유적을 한데 모은 특별전 '발굴에서 전시까지'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7월 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경주 분황사, 양양 낙산사, 전북 익산시 왕궁리 유적 등 중요 유적지 27곳에서 발굴한 유물 772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경주 분황사에서 발굴된 국내 최고(最古)의 바둑판은 수년에 걸쳐 출토한 희귀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품뿐만 아니라 발굴 장면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도 선보인다.

발굴 당시의 어려움이 생생히 소개돼 유물이 주는 감동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2077-9000

김주일 기자

득산 스님 경화 개인展

달마대사가 한지가 아닌 무명천과 돌에 그려져 있다. 득도달마선원 주지 득산 스님은 달마도를 그리는 화판에 차별이 없다. 표정도 제각각이다. '근엄한 달마' '익살스럽게 웃는 달마' '인자한 달마' 등등. 득산 스님은 수년간 공들여 화판에 옮긴 다양한 달마를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마련한다. 6월 17일까지 대덕문화전시관 1층 대덕전시실에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도 달마도'와 '중국 달마도'도 전시된다. "인도의 전통적인 얼굴형 속에서 선, 교, 기가 내포된 웃는 달마도를 인도 달마도라고 정한 반면에 중국 선사상의 시조답게 근엄한 모습을 중국 달마도라고 붙여 봤습니다." (054)452-1323

김주일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⑪

1998년 한국불교음악협회 창립

90년대 후반

90년 후반 들어 한국불교음악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불교계에 사단법인화된 음악협회가 동시에 두개 생긴 것이다. 하나는 (사)삼보불교음악협회(이사장 운문스님)이고 (사)불교음악협회(회장 반영규)이다. 이 두 단체의 모체는 1989년에 정부기 교수와 반영규씨, 능인선원합창단 단장 권능인행, 경국사합창단 단장 이공덕행과 두 합창단의 지휘자였던 필자 등이 모여서 만든 제3세대 불교음악연구회였다.

운문 스님 기리는 음악회 준비위 구성도
삼보불교 · 한국불교음악협회로 나뉘어

1993년 11월 13일 불교음악의 대향연 음악회를 마치고 평가회를 하던 중 정부기 교수의 제안과 회원들의 찬성으로 반영규씨가 물러나고 제3세대 불교음악동인회를 '한국불교음악연구회'로 명칭을 바꾸어 한국음악협회에 등록했다. 제2대 회장은 정부기 교수가 맡았다.

이후 98년 9월 대구지회 회원들과 불교음악의 미래를 토론하면서 운문스님의 공로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 이달철 대구지회장은 "안선생, 운문 스님의 음악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대대적으로 개최보는게 어때? 그리고 주최를 제 3세대 불교음악연구회보다는 한국불교음악협회로 개칭해 모든 불교음악인들이 함께 준비하도록 하면 좋지 안겠어?"라는 제안을 했다. 참석한 사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이 뜻을 전국에 있는 불교음악인들에게 알렸고 대다수가 찬성해 1998년 10월부터 가칭 제 3세대 불교음악연구회를 한국불교음악협회로 명칭 변경했다.

한국불교음악협회 창립과 더불어 운문 스님의 불교 음악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음악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회원가입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반영규씨와 박범훈 교수가 협회 동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위원장인 김동환 교수는 반영규 씨를, 박범훈 교수는 필자가 국립극장으로 찾아가 협회 등록을 권했으나 둘 다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범훈 교수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불교음악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만나자고 해 남산 타워호텔 커피숍에서 필자가 중앙대 교육대학원 논문을 쓰기위하여 준비하던 자료를 모두 가지고 박범훈 교수를 만났다. 그 자리에는 반영규씨도 와 있었다. 박 교수는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보자"라며 이야기를 시작됐다. 대화가 몇마디 진행될 때쯤 박범훈 교수는 다른 손님이 찾아와 자리를 옮기면서 반영규씨와 잘 상의해 보라고 하며 자리를 떠났다. 필자와 반영규씨의 대화는 간단하고 명료했다. "협회 만드는 것을 엎던 것으로 해" "왜요?" "어른이 말하면 그렇게 해" "그러면 운문스님과 김희조선생님은 어른이 아니신가요?" 대화는 이렇게 결론없이 끝났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⑭

조계산 불일암

장인성 시인

산중에 빈집있어 들어섰더니
마당에 빈 의자만 손님을 맞네
그리움도 지니면 짐이 된다고
그마저 벗어놓고 돌아서라네.



불일암(佛日庵)-무소유의 수도승 법정 스님이 송광사 경내에 세운 암자

그림: 이상배 화백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할인)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 영원한 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經典專門講座

한국평생대학 경전학부에서는 불교인구의 저변 확대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전 전문강좌를 열고 있으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1. 모집시기 : 6월 · 12월 (지방 교육원에서 접수)
2. 수강자격 : 경전 가르침에 따라 수행 하실 분
3. 강좌과목 : ● 법화경 (불교 최고의 경전)
● 황제내경 (중국 고대의학 원전)
● 수행치유법 (심신수행, 생활의학)
4. 강좌일시 :
대 구 ▷ ① 화요일 오후 2시 – 4시 (평일반)
②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주말반)
부 산 ▷ ①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오후반)
②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저녁반)
5. 강좌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 빌딩 3층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 2층
6. 기타특전 :
● 수학증서 수여 (1년 단위)
● 부부함께 등록시 한명은 회비 면제
● 군.경.소방.교정직 근무자 회비 50% 할인
7. 문의전화 : 053)952-8711 /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76-25번지

교육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韓國平生大學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엽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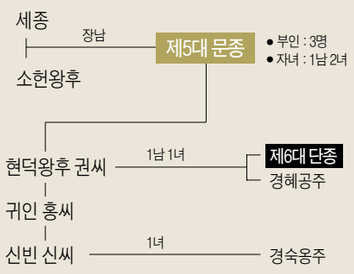
자애로운 권력자…세자 29년 · 재위 2년 4개월



5대 문종 현릉

문종 1414~1452 (39세 졸)
재위 2년 4개월 1450.2(37세)~1452.5(39세)

제5대 문종 가계도



문종은 세종의 장자다. 조선 왕조 최초로 적통 장자의 왕위 계승이 실현되었다. 문종은 1414년(태종 14년) 10월 3일 한양 사저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소헌왕후이며 이름은 향(珦), 자는 휘지(輝之)다. 1421년(세종3년) 10월 27일 왕세자로 책봉(8세)되어 1450년 2월 22일 37세로 왕위에 올랐다. 시시콜콜 연월일을 밝히는 이유는 그에게 시간은 참으로 애석한 토막토막이기 때문이다. 왕들의 재위 기간과 업적은 비례한다. 재위 기간이 짧은 왕들 몇몇을 살펴보면, 12대 인종-9개월, 8대 예종-1년 2개월, 5대 문종-2년 5개월, 27대 순종-3년 1개월, 6대 단종-3년 2개월 순이다. 사연은 많으나 업적을 쌓을 틈이 없었던 미미한 왕들이다.

문종에겐 기이한 기록이 많다. 왕세자 자리에 29년간 있었다. 29세 되던 해인 1442년부터 8년간은 아버지 세종의 명으로 섭정을 했다. 준비된 왕 노릇하기에 충분한 수업을 했다. 그러나 제왕 수업은 착실하게 받았지만 건강을 준비하지 못했다. 원래 병약했고 세자 시절 업무 과중으로 건강이 심히 악화되었다. 즉위 후에는 병세가 더 심해져 재위 기간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내다 서른아홉에 병사했다. 역사의 역류가 시작된다.

문종의 정비 현덕왕후 권씨는 1431년 15세에 동궁에 들어와 양원이 되었다가 세자빈 봉씨가 동성애 사건으로 폐위되자 1437년 세자빈으로 책봉된다. 현덕왕후는 경혜공주와 단종을 낳았다.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산후병으로 24세에 죽었다. 약도 쓸 틈 없이 갑자기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 내외는 5일간 상복을 입었고 세자였던 문종은 30일간 상복을 입었다.

세자빈 권씨가 죽은 후 문종은 더 이상 비를 들이지 않는다. 세자 시절인 28세에 권씨를 잃고 39세에 죽을 때까지 새장가를 들지 않는다. 12년 동안 홀아비로 산다는 것은 당시 법도로 불가사의다. 제왕에게 여인은 호불호, 호색과는 별개다. 아들 생산은 종묘사직을 이어갈 의무다. 홀아비 세자, 홀아비 임금이 문종이다. 아버지 세종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배필을 들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여자를 멀리하는 성품? 고집? 병약함? 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 상태가 어떠하든 형식적인 세자빈, 형식적인 중전은 필수 요소인 시대가 아닌가. 역사의 회오리를 예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에 분명하다.

문종은 죽어서도 홀아비 신세를 겪었다. 현덕왕후가 세자빈 신분으로 단종을 낳고 죽자 경기도 시흥 군자면에 안장된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현덕왕후로 추존되고 소릉(昭陵)이란 능호를 받는다. 1452년 문종이 종기가 터져 경복궁 강녕전에서 승하하자 건원릉 동남쪽 줄기에 묻힌다. 태조의 건원릉에 이어 동구릉에 들어온 두 번째 능이다. 이 때 시흥에 있던 현덕왕후도 천장해 현릉은 합장릉이 된다. 여기까지는 좋다. 생전에 못 다한 부부의 금슬을 다시 잇는다.

그러나 다시 이은 금슬은 6년 만에 파국을 맞는다. 세조에 의해 합장된 현릉이 파헤쳐지고 석을 대로 썩은 왕후의 시신은 시흥 군자 바닷가 10리 바깥에

세자빈 죽은 후 홀아비로 지내
현덕왕후 릉은 단종 복위사건
연류로 무덤 파헤쳐 서인 취급
유생들 압력에 '척불언론' 수용

내팽겨쳐진다. 사연은 이렇다. 세조 3년(1456) 현덕왕후의 친정어머니 아지와 친정 동생 자신이 단종 복위사건에 연루된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현덕왕후 집안은 서인(庶人)으로, 현덕왕후도 서인이 되고 무덤을 파헤쳐 서인의 예우로 다시 장사지낸다. 종묘에 있던 신주마저 철거되었다.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바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다. 죽은 문종은 무덤마저 편치 못했다. 합장릉인 현릉은 단릉이 된다. 문종은 다시 홀아비가 되어 56년이란 긴 세월을 보낸다.

중종 7년(1512), 현덕왕후 복위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듬해 종묘에 벼락이 치는 흉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복위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발단은 종묘제례 때문이었다. 역대 왕들의 신위는 모두 짝을 이루고 있는데 문종 신위만 홀아비로 서 있다. 신위에 송구스러워 짝을 맞추어야한다는 명분이었다. 현덕왕후의 신위를 종묘에 다시 세우려면 능을 복원시켜야 한다. 그래서 시흥 군자 앞 바닷가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시신을 찾아야 능을 쓰지. 56년 전 무성의하게 내다버린 썩은 백골이 아닌가. 기록은 없으나 심덕 좋은 어느 민초가 위험을 무릅쓰고 초라하게 위장해서 묻었을 것이다. 진위는 알길 없으나 유골 몇 점 수습해서 문종이 묻힌 현릉으로 모셔온다.


3잔을 올리는 초헌관들.


비각너머로 보이는 현릉.

유골을 모셔와 원래대로 합장한 것이 아니다. 원상복구가 아니라 문종이 묻힌 곳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능을 조성했다. 문종의 왕통은 아들 단종을 끝으로 단절되었다. 국조오례의 왕릉 양식도 단절되었다. 두 번 죽은 현덕왕후는 문종의 좌측 언덕에서 묻혀 모진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시어머니(현덕왕후)와 며느리(단종비 송씨)의 비극적 운명이 닮았다. 세조가 집요하게 현덕왕후를 증오한 이유에 대해서 야사는 이렇게 전한다.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죽었으니 피비린내 자욱한 역사의 현장에 그녀는 없었다. 그녀의 원혼만 현장을 지켰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단종을 죽이자 원귀의 비수가 대궐을 휩쓴다. 밤마다 세조와 그 가족들의 꿈에 나타나 식은땀 흥건하게 한다. 급기야 세조의 큰아들 덕종이 원귀에 시달려 죽고, 세조 역시 꿈에서 그녀가 뱉은 침 때문에 전신에 피부병이 걸려 고생했다. 여법한 권력 승계를 이루지 못한 비극의 되풀이다.

세종의 맏아들 문종 역시 아비를 닮아 어질고 착한 모범생이었다. 학문을 좋아해 학자들을 가까이 했으며 측우기 제작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천문, 역산, 산술에 뛰어났고 서예도 능했다. 거동이 침착하고 판단이 신중하여 남에게 비난 받는 일이 없었지만 문약에 병약까지 겹쳐 웅장한 생애가 되지 못했다. 자애로운 자는 권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서늘하게 보여준 이가 문종이다.

언관들의 언로에 대해서도 관대했다. 척불언론이 대표적이다. 세종 말기에 세종과 왕실에 의해 호불정책이 세력을 펼쳤다. 궐내에 내불당이 설치되고 불교 융성정책에 대해 유생들이 불만이 쌓였다. 문종이 즉위하자 유학 중심 언관들이 왕실의 불교적 경향을 불식하고 유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려했다. 그런 주장은 유약한 문종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현릉은…

조선 5대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의 능이다. 현재는 양 언덕에 묻힌 동원이강릉이지만 조성 당시는 합장릉이었다. 동구릉 능역에 두 번째로 조성된 능이다. 참도, 홍살문, 정자각, 능침이 곧게 뻗어 있지 않고 참도가 90도 각도로 두 번 꺾어져 있다. 능침에 누워 있는 이들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다.

알림:629호에 실린 혜각존자 신미대사 사진은 법보신문 소장 자료임을 밝힙니다.

21세기 불교를 학문과 교양으로 읽는다



자유인 임제
성열 지음 | 신국판 | 값 18,000원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지宗旨인 임제종을 창시한 임제臨濟의 일대기!
부처님을 믿고 매달리는 신앙인이 아닌 부처님으로부터 벗어난 대자유인으로
선禪의 참모습을 보여준 임제를 통해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찾는다.

현암사가 신보이는 불교 서적


보살예수 김희성 지음
붓다, 이웃종교로 읽다 오강남 지음
세계 종교 둘러보기 오강남 지음
신쓰끼리므로 금강경 공부 성열 지음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숭산선사 공안집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대우 지음
부처님 말씀 성열 엮음
다석강의 다석학회 엮음

알기 쉬운 불경
불교경전의 정수精髓만 모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불경 시리즈

불교대전 민혜 한몸문 편찬 | 이원섭 역주
불교성전 석혜운 옮김
불교개론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붓다 무사고지 사네아츠 지음 | 박경훈 옮김
법구경 김달진 옮김
열반경 다무라 요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아함경 마스타니 후미오 지음 | 이원섭 옮김
회엄경 다이키 고시로 지음 | 이원섭 옮김
반야·유마경 이시다 미즈마로 지음 | 이원섭 옮김
미란타왕문경 이시카미 젠오 지음 | 이원섭 옮김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121-862 서울시 마포구 아현 3동 627-5 전화 02-365-5051 www.hyeonamsa.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매주 토요일 2시 법문
지도법사 : 적파명등 합장
행자 및 동자 모집
문의 :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선원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지도
토요일 철야기도
영가천도, 우리말 천수경
▷상 담 환 영◁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秘法 전 수
못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혼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중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지방인 숙식제공)
051)818-2358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퇴마 영혼 치료
빙의 · 신끼 · 무병 · 정신질환 ·
우울증 · 두통 · 알콜중독 · 만성질환
조상이나 타인 영가를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명없이 몸이 아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병고치유함
055)261-1230
011-586-6091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 불사나 보시하실 분

청암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51)202-8770
www.달마.kr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 49재 · 점안식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태평소
살풀이 지전무 극락무 회심곡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010-4870-8359
범음범패 무형문화재 9호 전수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 국 택 배 가 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역 학 강 의
명리 · 육효
적천수천미
한 문 원 서
051)523-8425
※통화중이면 지방 강의중 입니다
010-3667-8425

불교전통의식대학 개원
과목 : 천수바라 · 작법무 · 천도의식 염불
집전 교육강의
(사찰행사 : 49제 · 점안 · 구병시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대한불교 원광사
주지 : 삼광스님 학장 : 무상스님
051)558-8830~1
010-3928-0006

수양기도공부
●1인 1실
●침구 및 삼식 공양 제공
●구돌,온돌,황토방
●월 30만원(선착순)
055)883-2933
011-446-2933(청학사)

동양철학 작명학 배우실 분
◆ 3개월 완성
◆ 기초에서 완성까지
◆ 저렴한 비용
◆ 수강자 편한 시간선택
유심 동양철학 연구원
상담 전화 011-711-5072

명리학 책임지도
과목 : 명리학 + 성명학
28년 실전경력 책임지도함
월4회(토,일) PM 7시~9시(4개월 완성)
(초 · 중급반 2개월+고급반 2개월)
법성사 법성스님(서울 강서구 발산동)
02)2658-7003
011-695-1626

지리산 청정지역 고사리 판매함
자연 채취자 : 지리산 견성암 스님
중량 : 170g, 가격 : 10,000원
주문 전화 055)746-0059
010-5530-0059
•입금계좌 : 농협 887-02-053166
(예금주:성기철)
•주 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정곡리 222번지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제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출장개인지도가능)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는
전통종단의 맥을 이어갈 예비스님 및
사미승을 모집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자율적인 교육, 1인1실
055)381-1199
011-590-1198

법회를 주관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407-0298
010-6328-3955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010-6399-5311
043)848-531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9854-9810

남해바다 근접한
조용한 산사
무보시로 기도수행하며
지내실 비구니 스님
이나 공양주보살님
▷위치 : 전남 고흥
010-2511-1188

비구니 부전스님
법당보살 모십니다
031)533-8815
011-258-9997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035-151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31)335-2576
011-270-2675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각종 재의식, 법회가능 하신분)
▷ 경기도 장흥
031)826-7489
011-706-748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밀양
(40~50대)
055)353-0303

비구니스님 토굴에서 함께 기도하며
가족같이 지내실 보살님 모십니다.
▷55세 이상
사정상 아동보호가 어려우신분도 가능
비구니스님께서 조건없이 보호해
드립니다. (초등3학년 이후 남자아이에 한함)
▷경북 영양 향적사
054)683-5188
016-9646-057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7-206-0113
비구부전스님을
모십니다
011-698-383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음성 장호원
019-494-0694

처사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월100만원, 보너스 별도
월 2회 휴무
011-9571-6479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승입니다
기도 부전자리
원합니다
010-9221-444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인천시 강화군)
011-9554-3568

행자(예비스님)모집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울산 울주군 삼동면
052)254-6144
011-9660-4241

기도 부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운전가능하신 스님)
▷ 경북 포항
011-820-3046
054)284-6601

인터넷
국제불교방송에서
서울이나 부산
법회를 포교원이나
사찰 무보시로 장소
제공하여 주실분
※각 시도 지시장 모집
02)855-1354
011-876-1354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신심있는
비구.비구니 스님
▷비구.비구니 65세 이상
011-498-3846
043)222-3846
043)292-081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야간으로 복지학과,
유아교육 공부하실분 환영합니다
011-9583-4633
054)272-4633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무 료 공 개 강 좌
정통사암오행침 / 극침
매주 토요일 14시,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1번 출구
대광고 버스정류장 건너편 원불교앞 경호빌딩 201호
◆ 사암오행침구총론 저자 직강
◆ 40 여년 경력 비법 전수
◆ 마술같은 신비의 극치
◆ 신체의 모든 통증이 즉석에서 호전됨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침술의 최고봉
正統舍岩五行鍼灸學會
www.ochim.com
☎ 010-3090-0575

동참자 및 인수할 분
1. 사찰(노인요양원 및 추모사업 진행중)
대구근교 30~40분, 대지 약 700평, 건70평
인수가 4억5천(융6700만)
2. 솔밭, 수목장 추모공원부지 2만평(평당12만)
대구 20여분 거리, 절을 운영할 분을 모십니다
053)471-3123 / 017-501-2315 (주)유한복지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 (간부스님은 특별 혜택이 있음)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지역
● 법당 : 30평
● 명부전 및 요사 : 300평
● 부지 : 1200외 1500평
● 가액 : 18억(급매가격임)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마산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7억3천
● 위치 : 충남 당진
● 법당 · 요사 : 140평
● 부지 : 9,500평
● 가액 : 13억5천
● 스님 및 무속인 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경춘국도 (서울에서 약 50분거리)
● 부지:2,000평
● 건물 5동(조립식 포함)
● 가액: 16억
● 특징: 야외법당, 진신사리탑(전망좋음)
033)261-5285
010-2871-5285

사 찰 안 내
● 위치:원주시 속초면 평장리 원주시내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교외지역
● 부지:360평, 건평:85평(2채)
● 현재 사찰로 사용중이나 일반가정집,팬션으로 사용가능
● 가액: 3억 6천, 심야전기 사용
033)731-0997
010-7314-0635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
● 법당 20평, 요사 30평 화장실1평, 대지 150평
● 가액 : 8천 5백만원
● 현대식건물, 슬라브지붕
● 앞나무수령 500년 넘는도량 현시세 보라 이하
● 강경 차로 15분, 함열 차로 5분
011-811-5466

포교당안내
● 위치 : 창원시내
● 평수 : 90평 (4층 건물중 3층
● 방3, 사무실1, 주방, 화장실2, 샤워실1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4877-59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00평
● 법당 : 36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8억 5천
● 위치 : 서울 산속
● 부지 : 500평 국유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5억5천
전국 사찰 · 포교당 · 부전스님 · 공양주 소개합니다
사무실이 독립문역 1번출구 150m로 이전하였습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립공원 내)
● 대지 : 208평(조경완결)
● 법당 목조건물 20평, 산신각 4평(신건물)
● 황토방 한옥건물 15평 1동, 요사채 30평(신건물)
● 각방 욕조완결, 지하수, 마당에 연못있음
● 절앞에 큰 저수지가 있어 물좋고 경치좋음
● 급 양도 및 전세
011-575-0396

포 교 당 안 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 중 2층 45평
● 삼존불, 각단탱화, 산신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031)405-4181
010-6321-1639

포교당안내
● 위치 : 영등포 시장 로타리 1.5호선 역세권,도로변 번화가 요지
● 4층 건물 중 4층 45평
● 접견실, 주방, 세면장, 시설A급, 아주 깨끗한 옥탑방, 옥상사용가능
● 삼존불, 지장모셔져있음
● 보증금 1천만원 / 월 7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8527-874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구
● 부지 : 2,000평
● 대웅전 50평 (주지실 및 요사채)
● 심야보일러 완비
● 가액 : 3억 5천만원
● 전세 및 달세 가능
010-2667-7643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바닷가
● 부지 : 130평 (시유지 포함)
● 법당 목조 25평
● 주변경관, 바다전망 최고 120년 전통사찰
● 가액 : 3억2천
● 위치 : 삼랑진역 10분거리
● 부지 : 33,000평 (관리지역 7,000평)
● 법당 : 목조 15평, 요사채2동 120년 전통고찰 정남향 산세 빼어남
● 가액 : 4억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3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임 대
대웅전 · 산신각 · 칠성각
요사채완비 600평
경남 진주시 지수면 소재
010-5236-5808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 건물 : 신축, 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과 떨어져 있으며 앞에 조그만한 개울
● 부지 : 대지포함 약 670평
● 가액 : 1억7천만원
010-9304-2322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밀양 IC에서 10분 거리)
● 대지 235평,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35.10평방미터) 조립식 지붕, 단층 요사채 (67.145평방미터)
● 산신각 용왕당 사찰내부에 있음. 도로 시멘트 포장,
● 사찰 내부 주차 10여대 가능
● 가액 : 2억3천만원(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0-6782-2916
054)373-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백용사
● 법당, 칠성각,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 부지 : 약3600평
● 가액 : 7억5천만원
055)353-0611
016-422-061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구남여상, 굿모닝병원 중간대로변)
● 4층 건물중 2층 42평
● 삼존불 탱화시설 완벽
● 보증금 5백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720-9901
011-839-3881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1-820-461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양시 (종합운동장 앞)
● 평수: 75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11-9108-548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평수 : 28평
● 대지 : 1,100평
● 교통편리, 최고의 명당
● 가액 : 8억 7천만원
010-7795-8805

제주 단독주택(급)안내
● 위치 : 제주시 애월읍 (해수욕장 5분거리)
● 대지 : 51평(멀리 바다가 보임)
● 건물 : 원룸식 1동(깨끗함)
● 마당에 텃밭있고 차량 2대 주차가능
● 가액 : 4천3백만원(절충가능)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64)799-5617
010-6215-878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남구
● 대지:약170평,건평:약70평 (1층법당,2층요사채) 저택같은 2층집
● 마당넓음, 위치최고 시설 깨끗
● 보증금 : 1천만원/월7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5201-7499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표충 비각 근교) 국도변 위치,밀양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약 200평
● 요사채 60평(적벽슬라브)1동
● 법당 20평(아미타불,삼존불)1동
● 최고급 시설, 태양열, 단독지하수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 일절
● 가액 : 2억 1천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0-5883-50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원주 문막읍 시내버스 정류장 앞
● 법당 : 25평(2층) 방2, 주방, 샤워장. 시설비 500만원
● 보증금300만원,월25만원
● 특징:사람 내왕이 많은 중심지 역학하시는분에게 최적지
033)731-9277
011-9483-9221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토굴 임법당
● 위치 : 북한산(불광동)
● 단독 38평
● 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약간
010-5573-2626
※공부하실 스님이나 기도처로 적합

사찰(터)안내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 부지 : 200평
● 가건물 임법당 뒷쪽은 야산, 앞쪽은 시내와 바다가 보임. 아주 조용함
● 가액 : 1억
011-693-5324
-오후에 통화 가능-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법당, 약사전, 산신각
● 평수 : 대지114평, 공양간, 요사채, 방 4칸
● 가액 : 1억 (융자 2천만원 포함) 내방 후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함
017-846-466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근교
● 목조법당 4채, 부속건물 5채,
● 가액 : 보신 후 결정
010-3163-4747
061)537-4848

포교당안내 도심속의 포교당 조용한 단독주택
● 위치 : 부산 오륙도 부근
● 가액 :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절충
051)623-1384
010-3449-3278

사찰(급)안내
● 천하명당, 양쪽계곡 흐르고 전면에 넓은 호수 있음(토목완공) 광주광역시 30분거리
● 조립식 임법당, 창고, 차고 삼존불, 각단탱화 무료보시
● 평수 : 905평
● 가액 :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5255-9040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 대지:6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매함
● 가액:1억 7천만원 (절충가능,은행융자 3천5백만원포함)
011-9543-0226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개발지역근교
● 대지 247평, 건평 70평 (현대식 건물, 기역자형)
● 교통편리, 산좌수려
● 용도:암자,명당센터겸단식원, 수련원 또는 전원주택
● 가액:1억7천만원(절충가능)
011-9430-1144

사 찰 안 내
● 위치:양산시 원동 (불사한지 한달된 신축사찰)
● 법당 1동 26평, 요사1동(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연못조경완벽
● 가액 : 2억2천만원
※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055)372-0123

암 자 안 내
● 위치: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 평수:1,300평
● 흙집 있음, 조경시설 되어있음
● 가액 : 2억8천만원
011-9917-7039

포교당 안내
● 위치:충남 아산시(시내 요지)
● 2층 건물중 2층
● 평수 : 약40여평 방2, 욕실,거실, 주방 법당 시설완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6374-003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 총평수 : 104평
● 건물 : 26평
● 가액 : 7천만원
011-884-776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대중교통편리)
● 건물 1,2층(각60평), 법당완비
● 1층 : 법당(약40평), 산신각, 용왕당
● 2층 : 종무실, 요사채
● 월세 : 110만원(1,2층 포함) 총인수금 : 2300만원 (비품포함)
010-3534-3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부지 : 86평, 건평 : 114평
● 3층 건물 : 1층 공양간, 2층- 스님 서재실, 3층 -법당
● 가액 : 3억 5천만원
017-506-8730
055)331-8730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
● 대지 : 259평
● 조립식건물 약 60평 (집뒤간추 30평)
● 집뒤 산숲이 우거진 확트인 전망
● 가액 : 6500만원
010-6438-356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평수 : 210평
● 법당 20평 요사 30평
● 가액 : 1억5천만원 (집기류포함) (절충가능)
011-491-234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수성구 중동
● 4층건물 4층(승강기유)
● 시설일체, 즉시법회가능
● 평수 : 60평
● 보증금 1000만/월7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6-853-5519
053)768-3366

탈종공고
● 사찰명 : 수도사
● 주 지 : 진상(고 금옥)
● 주 소 :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48번지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1년 6월 8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청룡사
● 주 지 : 현우 덕륜(최수영)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561-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불기2551년 5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교통요지)
● 대지 5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산신각, 용궁 별도
● 공양간 15평, 창고겸 큰방
● 보증금 2천만원, 월2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태고종스님이시면 더 좋습니다
010-7167-099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무안 운정리 노리실 석불암
● 대지 : 450평, 법당 : 5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9천만원
석불암 : 055)356-5322
부산 : 016-832-5114
051)254-30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접면
● 대지600평, 법당25평(단청), 요사채30평, 20평
● 상담 후 가격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바람
010-4583-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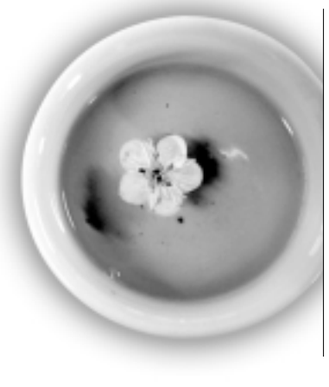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마산, 대구, 창원 인접)
● 평수 : 1400평
● 법당, 칠성각, 용왕당(연못), 요사채 총 100평 이상
● 가액 : 3억5천만원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랍니다
010-2592-152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광안동 (총 40평)
● 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음보살, 신중당, 삼성당, 산신각, 영단
● 방2, 공양실1, 화장실1 에어컨 및 시설 최상급 (준비하실것 전혀 없음)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권리금 3천만원
010-5408-4949

사찰(급)안내
● 위치: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 법당 : 20평, 요사채 : 65평
● 신축 신도회관 : 65평
● 대지 : 1,000평
※서천가는 21번 국도에서 인접
● 가액 : 3억원(절충가능) (스님 병환으로 급 안내함)
041)934-2134
010-4734-2134
010-4844-9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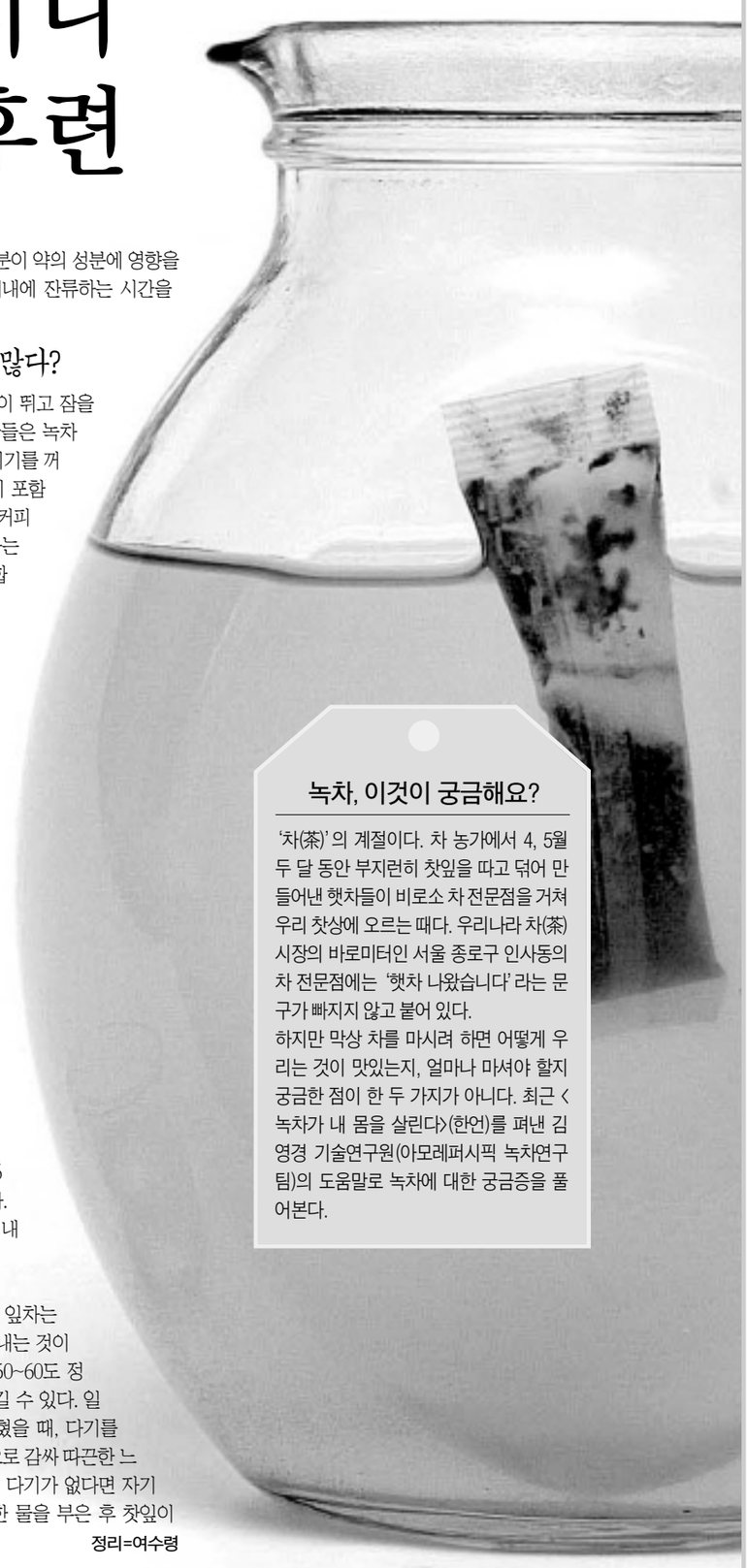
임 법 당 안 내
● 위치:강원도 동해시 중심가
● 법당,방2,거실,주방,화장실 창고2,텃밭,주차공간 많음
● 삼존불,지장보살 옥불, 천수관음보살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집기일체 400만원
011-402-1669

포 교 당 안 내
● 위치: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9-656-2766



綠茶

알고 마시니 가슴이 후련



녹차는 냉한 식품이다?

녹차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차는 냉해서 몸이 찬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차의 성질을 두고 '미한(微寒)' 즉 약간 차지만, 차가운 성질과 함께 따뜻한 성질 역시 겸비하고 있어 위로는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아래로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녹차의 냉성(冷性)에 대한 연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위가 약한 사람은 마시면 안 된다?

빈속에 뜨거운 녹차를 마시는 것만 피한다면 위가 약한 사람들도 마음껏 녹차를 즐길 수 있다. 오히려 녹차가 헬리코박터균의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대만 식품산업개발연구소의 연구결과와 녹차를 즐겨 마시는 일본 나카카와네 마을 주민들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낮다는 것을 볼 때, 잘만 마신다면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식사 바로 전이나 직후에 차를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므로 식후 30분 정도부터 마시는 것이 좋다.

녹차는 철분흡수를 막는다?

흔히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 철분의 흡수를 막으므로 임산부, 빈혈환자는 녹차를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동물실험과 임상실험 결과 녹차성분이 철분을 비롯한 미량 원소(구리, 아연, 망간 등)의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의 경우, 녹차 섭취 초기에 흡수율이 약간 낮아질 수 있으나 4주 정도 장기적으로 마실 경우 칼슘 흡수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찻물로 약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차에 함유된 성분이 약의 성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뇨작용으로 약물이 체내에 잔류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녹차에 카페인 성분이 많다?

카페인을 조금만 섭취해도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 때문에 녹차 마시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녹차 1잔에 포함된 카페인(20~30㎎)은 같은 양의 커피(70~130㎎)에 비해 적다. 또한 녹차는 카테킨을 비롯한 폴리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카페인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데아닌이라는 성분 역시 카페인의 작용을 억제한다. 하루 400~50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녹차로 섭취하는 카페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루에 몇 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녹차의 성분이 갖는 효능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루 3번 이상, 4~5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 적어도 하루 3잔 이상 마셨을 때 혈중 항산화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서울아산병원 민원기 교수팀)와 카페인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하루에 마시는 양은 성인은 하루 15잔, 임산부 또는 수유 시에는 10잔, 4~6세 어린이는 1.5잔 정도가 적당하다.

녹차는 일반적으로 티백은 70도 내

제대로 우리려면?

외의 물에 20~30초 정도 우리고, 잎차는 60~70도의 물에 2~3분 정도 우려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고급녹차일 경우 50~60도 정도의 물에 우려야 제대로 맛을 즐길 수 있다. 일반적인 정수기의 온수를 약간 식혔을 때, 다기를 이용할 때는 물을 부은 다기를 손으로 감싸 따끈한 느낌이 전해지는 정도가 60~70도다. 다기가 없다면 자기류나 머그잔에 찻잎을 넣고 따뜻한 물을 부은 후 찻잎이 가라앉았을 때 마시면 된다.

정리=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녹차, 이것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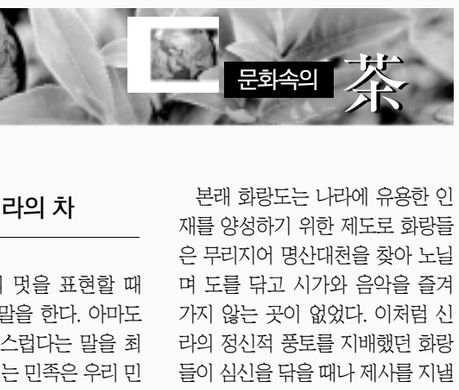
'차(茶)'의 계절이다. 차 농가에서 4, 5월 두 달 동안 부지런히 찻잎을 따고 덖어 만들어낸 햇차들이 비로소 차 전문점을 거쳐 우리 찻상에 오르는 때다. 우리나라 차(茶)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차 전문점에는 '햇차 나왔습니다'라는 문구가 빠지지 않고 붙어 있다.
하지만 막상 차를 마시려 하면 어떻게 우리는 것이 맛있는지, 얼마나 마셔야 할지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녹차가 내 몸을 살린다>(한언)를 펴낸 김영경 기술연구원(아모레퍼시픽 녹차연구팀)의 도움말로 녹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차인연합회, 올해의 명차 선정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흠)가 개최한 제14회 '올해의 명차' 선정대회에서 쌍계제다(대표 김동곤) 화개농협(대표 김종석) 보성제다(대표 서찬식)의 우전이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세 제품은 각각 1, 2, 3등에 해당하는 '용(龍)상' '봉(鳳)상' '학(鶴)상'을 수상했다.

한국차인연합회는 매년 '차의 날'(5월 25일)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그 해 국내에서 생산된 차 중 품평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차를 가려 뽑아 '올해의 명차'를 선정하고 있다. 박권흠 회장은 "품평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관능검사로 '올해의 명차'를 선정하고 있다"며 "제다회사들간의 공정한 경쟁이 우리나라 제다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문화속의 茶

39. 신라의 차

우리는 최고의 멋을 표현할 때 '자연스럽다'는 말을 한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자연스럽다는 말을 최고의 멋으로 여기는 민족은 우리 민족 밖에 없을 것이다.

본래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을 신화나 숭배 대상으로 삼았다. 제의(祭儀)를 통해서 자연의 힘을 얻고자 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음식은 얼마나 정성스럽고 귀한 것이겠는가. 이런 제물 속에 일찍부터 차(茶)가 있어, 차의 기원에서 전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화와 고사가 담겨져 있다.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元曉, 617~686)가 사포와 함께 부안 변산 내소사 옆 암자를 찾아갔다. 사포가 원효에게 차를 바치려하

본래 화랑도는 나라에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화랑들은 무리지어 명산대천을 찾아 노닐며 도를 닦고 시가와 음악을 즐겨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처럼 신라의 정신적 풍토를 지배했던 화랑들이 심신을 닦을 때나 제사를 지낼 때 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삼국유사>에 의하면 충담사가 경주 남산 차 공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경덕왕(742~764)을 만나 물으니,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삼화령의 미륵세존에게 공양한다고 하였다. 경덕왕이 '과인에게도 차 한 잔 줄 수 있냐'고 물어 차를 달여 드리니 차 맛이 특이하고 특별한 향기가 풍겼다. 이에 왕이 충담을 왕사(王師)로 봉하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떠났다고 한다. 이 당시 신라는 미륵사상이 수용되었던 시기이다. 신라

화랑들이 심신 닦을 때나 제사 지낼 때 사용
공양물 일부 고승·왕만 마시는 귀중한 물품

였으나 천수가 없어 고민이었다. 갑자기 바위틈에서 물이 샘솟아 이물로 차를 끓여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원효방

<신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강릉의 동쪽 15리 큰 바다에 다다르면 푸른 솔이 우거져있다. 다천(茶泉)과 돌 부엌, 돌절구(石臼)가 있으니 화랑선도들이 무리지어 노닐던 곳이다." 이곳은 한송정으로 <동유기>에도 "사선(四仙)이 놀던 곳을 한송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정자도 없고 소나무도 그전과 같지 않지만 돌 부엌과 석지(石池)와 석정(石井)만 남아 있어 옛 사선들이 차를 마신 흔적만을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차를 달였다는 돌 부엌은 고려 명종 때 김극기(金克己)가 시에서 '차를 달이던 부엌 이제는 헐고 이끼만 무성하여 거칠어졌네'라고 말한 구절에서 보듯, 지금은 더욱더 흔적이 없어져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차는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작되었다.

인에게 경주 남산은 보국(保國)의 의미를 가진 산으로 이곳에서 미륵세존에게 차를 공양하고 왕에게도 차를 올린 충담사의 나라를 위한 충절과 청빈을 알 수 있게 한다.

경덕왕 19년 두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았다. 이에 월명사가 도솔가를 부르니 없어졌다고 한다. 이에 보답으로 경덕왕이 월명 스님에 차와 염주를 하사했다. 이처럼 초기의 차는 부처와 왕에게 올려지고 또한 왕의 하사품이 되는 귀중한 물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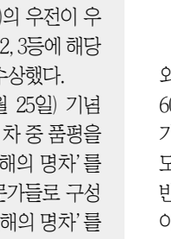
즉 신라시대 신앙은 미륵신앙이 융성하였던 시기로 차는 부처에 대한 공양물로 시작되어 제사(祭祀)와 일부 고승과 왕만이 마시는 것이었다. 점차적으로 사찰과 귀족에게 확대되어 차를 마시는 풍속이 성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흥덕왕 3년(828)에 당에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씨를 가져와 이를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3월부터 한시적으로 회비를 대폭 할인(보시)해 드립니다.

■ 大幸,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숙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였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고려 500여년 역사 가슴 뭉클

500여 불자 영통사 복원 3주년 기념 및 성지순례 원만성취 기원법회 봉행



대각국사 비를 관람하는 순례자들.



개성 영통사 전경.



선죽교를 구경하는 순례자들.

천태종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현장

고려 최고 교육시설인 성균관 10여 채 건물 남아
백열등 조명으로 전시된 국보 유창한 해설에 위안
충절의 상징인 선죽교의 석조건축 우수성에 감탄

6월 8일 오전 7시 30분 임진각. 분단후 처음으로 열린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길에 동참한 500명의 불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받느라 한창이다.

7시 50분, 파주 도라산 남측 CIQ(출입관리사무소)에 도착한 뒤 30분간 임국수속과 세관검사를 마친 뒤 8시 20분경 북한을 향해 출발했다.

비무장 지대를 5분 정도 통과하니 곧바로 북측 CIQ가 나온다. 남과 북은 느낌으로는 100여km 떨어진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다시 30분간 임국수속과 세관검사를 거쳤다.

버스는 개성공단을 거쳐 북한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개성시내로 접어들었다. 무언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성은 그것만으로도 속살을 전부 드러낸 듯 했다. 개성주민들의 옷차림과 일상 그 자체로도 북한의 실상이 피부로 절감된다.

시내를 빠져나와 나무 한그루 없이 벌목한 산등성이를 돌고 돌아 아름다운 호수를 사이에 아스라이 보이는 황진이와 서경덕의 묘를 보며 한동안 달리니 영통사가 나온다.

오전 10시, 순례객들은 영통사 보광원에 들려 참배를 한 뒤 개성 영통사 복원 3주년 기념 및 성지순례 원만성취 기원 남북공동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영통사 성지순례를 통해 한국불교가 민족과 역사 앞에 해야 할 방향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성지순례는 깊은 신심과 민족사랑 그리고 민족화해의 대작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을 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은 "남한의 불교도들이 영통사로 온 것을 열렬히 환영 한다"며 "영통사를 민족화합과 통일의 성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법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영통사의 유적을 돌아본 뒤 개성시내로 향했다. 시내 개성려관 식당에서 점심공양을 마친 참가자들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과 고려박물관을 찾았다. 개성시 부산동에 있는 고려박물관에서는 고려 475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1000여년 수령의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인상적인 성균관은 1089년 설립된 고려 최고의 교육시설이었다. 대성전과 명륜당 등 10여 채의 건물이 남아 있었다.

옆에 붙어 있는 개성역사박물관은 백열등 밑에 북한의 국보급 유물이 전시돼 보안이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여성 해설사의 유창한 설명을 곁들여 다채로운 유물과 유적을 전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고려박물관에는 야외에도 북한의 국보유적 제 139호인 현화사 7층석탑등을 전시해 놓았다.

또 충절의 상징인 선죽교와 표충비는 순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화재였다. 포은 정몽주의 선혈이 서려 있는 북한의 국보유적 159호 선죽교는 1216년에 건립된 선지교. 정몽주의 피살 이후 선죽교로 부르게 됐다는 안내문이 있다. 지금도 혈흔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개성의 건축석조예술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듯 했다.

시내를 관통하며 고려 초에 건립된 남대문은 개성성 내성의 정남문. 얼핏 보니 문루에 연복사 종이 지금도 걸려 있었다.

한편 조선 중기의 한 기록에는 개성시내에 유명한 사찰만도 성내에 300곳이 있었고, 현재 절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 이후 궁궐 주변과 송악산 기슭에 25개의 절을 지었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찰이 폐사돼 남아 있는 사찰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했다.

오후 4시 20분 또다시 세관 및 출국수속을 마친 순례자들이 북측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했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하니 오후 6시 30분이다.

송도3절로 유명한 박연폭포를 못보고 온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루 개성순례는 내용이 풍부해서인지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평이 많았다.

서울에서 주변에 이만한 관광지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고 해야 할까. 좀더 시설을 보완해 1박2일 코스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더욱 값진 순례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 북한측 민족화해협의회 리창덕 부장은 "북한은 남측 천태종의 성지순례만 적극 협조하고 모든 요구를 들어줄 것" 이라며 "현대나 롯데를 통한 개성관광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성/글 · 사진=김원우 wwkim@buddhapia.com

얼굴에 분 칠 한 번 안 하셔도, 화려한 장신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셔도,
언제나 맑은 빛을 발하시는 단아한 모습처럼 스님의 시에는 그 어떤 치장도 보이지 않는다.
습작기 문학도들이 흔히 쓰는 시학 기법등의 기교도 없다.
오로지 정신, 할일의 경지에서 나오는 천상의 언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 쓰고 난 후 갈고 다듬는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무녀가
예행연습 없이 굿을 하여 중생의 한을 풀어주듯,
가슴속에 가득 담긴 불심의 언어들을 일필휘지로 풀어내시는데 있다,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읽히는시!!

백련잎에 청개구리

정심 보덕스님 詩集

천정무구의 부처님의 귀한 법문(백련)을
경청할때는 부처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중생되는
불자의 마음 자리(청개구리)를 시로 표현한
보덕스님의 명상시집.



물질만능주의에 찌들고, 지쳐가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집을 꾸미게 되었다는 보덕스님, 지리산 함양에 위치한 견불사에 오늘도 한결같이 오가는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메세지를 전한다.

정심보덕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055)962-3931 / Fax 055)962-3920 지리산 견불사(실상선원)

※ 인터넷 서적 운주사 등 불교 인터넷 사이트 절찬리 판매중





대행스님

뿌리가 있기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요

문 마음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가다 보면 이 공부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 힘이 미약해서 도대체 공부가 안되는 건가 싶어서 스스로 판단을 잘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서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이 즉, 교재고 공부입니다, 인생 공부. 여기서 이런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댁은 살아나가면서 다 겪어야 하고 그런데 뭐하러 '내가 다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걱정을 합니까? 사실상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있는 건데 내가 공부가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거는 그걸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꽃나무가 만약에 자기 뿌리를 못 믿어서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안 피고 있는가?' 이런다면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나무들이 '아, 내가 지금 열매를 맺을까? 꽃은 피었는데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이런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으니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거를 내가 공부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못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 뿌리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 싹은 거기에 의지하고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지

문 저는 불자들이 모인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국군병원이라든지 또는 시립병원, 행려병동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외면받고 있는 소외된 환자들을 위문도 하고 간병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동참을 해서 희망을 주고 있는데 마음공부를 해 나가는 불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내고 위안을 해 줘야 올바른 것인지 명쾌하게 답을 얻지 못해서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원하옵니다.

답 자기가 자기를 믿게끔만 해 준다면, 이리로 동그라져도 주처가 거기 있고 저리로 동그라져도 주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도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다면 나는 항상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바깥으로 찾는다면 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허영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속에 종자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불성 종자가 없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靈)의 종자는 바로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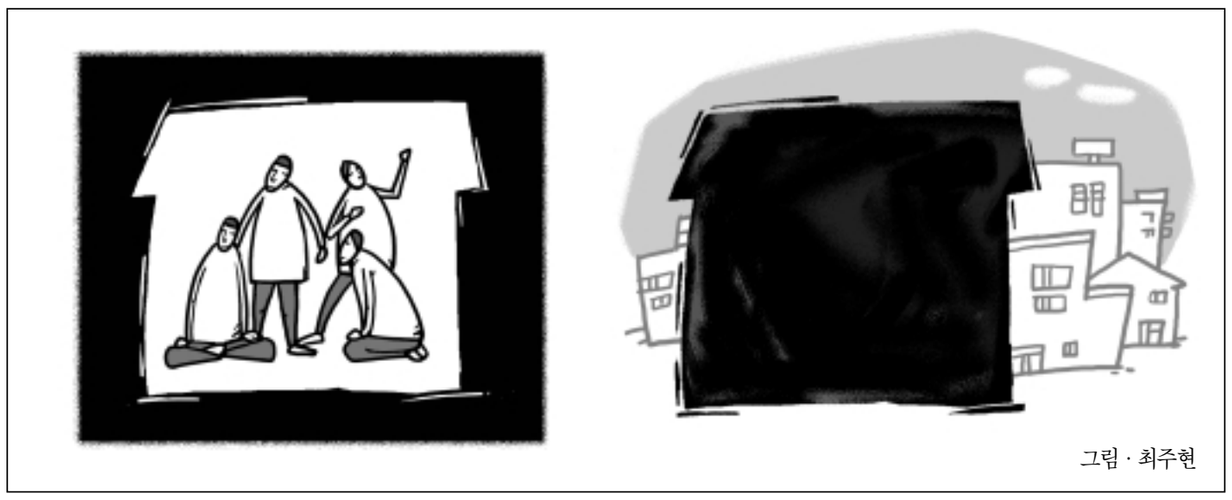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장자라야 되겠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나로부터 주처가 있고 나로부터 이 몸뚱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이름이 돼 버리고 자기 인식들이 그렇게 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레가 아니라면 살 수가 없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이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위축시켜서 생각을 그렇게 하니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항상 중생으로만 살아라, 거지로만 살아라.' 이러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타인을 믿는다면 모두 마구니의 장난과 같으니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에 그만 거기에서 딱 막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딱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각자라고 그랬거든요. '각자 너를 믿지 않는다면, 타의에서 구한다면 그건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못났든 잘났든 너로부터 이 세상이 있는 거지 너를 빼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처의 자기 주인공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바깥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건 이 진리의 이름만을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죠. '불(佛)'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을 말한다. '교(敎)'는 일체 만물만생의 생활이다. 일체 만물만생이 생활을 해 나가는 거를 '교'라 그런다. 모든 생활에서 배우고 느끼고 지혜가 넓어지고 또 연구를 하고 창조가 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언어는 진리를 말하는 거지 머리 깎은 사람이나 믿는 것으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수녀들이 머리에 쓰고 하는 거나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만 이 세상 삼라만상이 천차만별로 그 수레바퀴에 끄달리고, 그냥 천차만별의 가닥가닥, 갈래갈래로 모습이 돼 있고 그러니 이것을 사람의 머리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무명초는 가차없이 잘라 버려라, 나오는 대로 잘라 버려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나오는 대로 깎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원효 대사가 설총이 쓰레질을 해 놓은 걸 보니 말갛게 쓸어 놨거든요. 쓸어서 무더기를 지워 놓았는데 가서 한 움큼을 집어서 다시 뿌려 놨어요. 이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 아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발 떼어 놓고 들어오는 격이란 말입니다. 한 발 떼어 놓으면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없어지는데 한 발 떼어 놓는 게 없다면 그냥 다 무효죠. 그러니까 역시 떨어지면 또 쓸어야 하고 떨어지면 또 쓸어야 하는 것이 이 진리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한테 이익하게 하려면 무조건 당신 마음에 주처가 있는 거니까 밖에서, 먼데서 주님을 찾지 말라고 일러 주는 거죠. 당신을 벗어나서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 깊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또 불자들한테 이익 되고 공덕이 되게 하려면, 마음이 합쳐져야 공덕이니까 한마음으로 한 공덕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 마음들이 한데 합쳐져서 일을 해 주니까 공덕이죠. 그러나 한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면 공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 아니게 돌아가야 한다. 전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마음이 50%가 있다면 보이는 사람의 마음이 50%가 있다. 보이지 않는 몸이 50%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체가 50%다.' 하는 것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산 사람이 반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체가 또 반이 있죠. 밤낮이 이렇게 돌아가듯, 살고 죽는 것도 그렇게 돌아가듯, 그러니까 불자에게는 당신 자부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 안에, 그 숱한 보살의 이름이 다 거기에 있다고, 당신네 아픈 걸로 비유한다면 그 약사보살은 바로 당신한테 있다고, 그 자부처의 마음에서 약사보살이 나온다고 그렇게 일러 주세요. 그렇게만 일러 주고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무진장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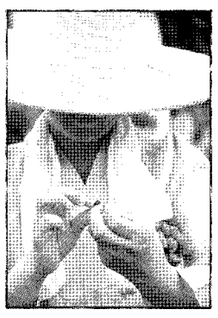
천도가 왜 생겼는지?

문 불가에서의 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그리고 천도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요? 어머니께서 자꾸 꿈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보이고 몸이 불편하시다고 해서요.

답 천도가 왜 생겼느냐. 정신계의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의식이, 항상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친척 집을 맴돌거나 자기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묘지에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몸이 없어지고 나서 잔뜩 들어 있던 업식이 그림자처럼 나타나니까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업식 소굴에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뚱이 속에 업식, 의식, 모습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십시오. 모습들이 얼마나 천차만별로 돼 있나. 보지 않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모습들이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작용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작용을 해 가지고 파워를 일으키고 해서 자기 집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듯이 온통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고, 강을 건너가려야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불바퀴를 넘어서려야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이러니까 오백 년이 돼도 천 년이 돼도 물가에서 뱅뱅 돌면서 한 치도 건너갈 수 없죠. 이러니 자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천도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병이나 낫겠다고, 또는 자기가 잘되려고 천도재를 한다면 아니 됩니다. 묵은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 드린다면 자손들은 더불어 벗어나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한 염주 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잠깐만 생각하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급하게 생각하고 온통

☞22면으로 계속



천여 명의 죽음을 배웅하며 쓴 마지막 순간들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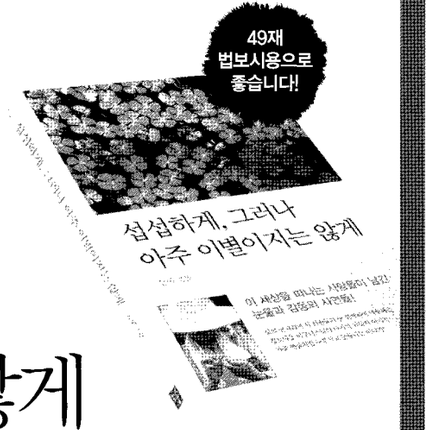
결혼을 두 달 앞두고 급성 위암 판정을 받아 약혼자와 함께 정토마을로 온 스물여섯 살 아가씨의 눈물겹고도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군인의 아내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모두 박사로 키웠지만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을 남겨둔 채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 묻힐 곳이 없어 기구하게도 기독교 묘지에 묻혀야 하는 한 스님의 이야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비로소 평화롭게 떠나는 한 여인의 애절한 이야기 등 그들에게는 한순간이라도 아쉽고 안타까웠을 순간순간들이 책의 페이지 페이지마다 그려지고 있다. **이 책은 실제 에피소드로 그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며 생의 마지막 순간의 기록이자 우리들이 맞이할 미래의 시추에이션이다.**

이승과 저승의 간이역 정토마을 비구니 능행스님의 이별과 만남 이야기!

능행스님이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웠던 2년 전 하나 둘 메모해둔 원고가 이 책의 바탕이 됐다. 그간의 활동을 일기체 형식으로 적어 얘기가 생생하고, 그런 만큼 설득력도 크다. **– 중앙일보**

능행스님은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죽음이 닥쳐 질질 끌려가기보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답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죽음일까 하고 묻는다. **– 동아일보**

49재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능행 지음 | 신국판 | 올컬러 | 276쪽 | 값 9,500원

www.dosolbooks.com
Tel. 02.335.5755



불편해도 좀 참아 보라
갖고 싶어도 좀 기다려 보라
그 속에 존재의 깊은 풍요가 있다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부자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법상 지음 | 신국판 | 올컬러 | 280쪽 | 값 9,500원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부자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富)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단순히 소유가 많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만족이 많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준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 이웃과 직원들에게 나눌 줄 아는 부자, 돈과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부자, 기도와 명상으로 깨어 있는 부자, 오직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부자, 그런 부자로 이 순간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www.dosolbooks.com
Tel. 02.335.5755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21면에서 계속

야단법석들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대장장이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대장간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풀무질을 해서 불을 피워야 뭐라도 만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두 살아 계시고 그러니까 "아이구! 묵은 빚 갚으랴 자식들은 옹기종기 있으니까 햇빛 주랴, 이거 참 정말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하고선 한숨을 훅 내쉬고선 손을 혹혹 불면서 불을 피우느라고 풀무질을 하는데 임금이 순회하시다가 담 밑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묵은 빚을 갚으랴 햇빛을 주랴.' 이 문제를 아무리 궁리해 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신하를 시켜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어요. 불러와서 "새벽에 불을 피우면서 한 소리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낳아서 길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제가 죽도록 갚아도 못 갚을 묵은 빚입니다. 그래서 '묵은 빚을 갚으랴 햇빛을 주랴, 이거 참 살기가 어렵구나!'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상놈의 풀무쟁이 신분을 싹 치워 주더랍니다.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요. 그래서 논농사 짓게끔 논마지기를 떼어 줘서 평민으로 살게 했더랍니다. 그것도 한생각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한생각이에요. 그걸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은혜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인간의 몸뚱이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몸뚱이가 한 철 나려 나온 겁니다, 한 철! 그 한 철 날 동안에 이 도리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렇게나 염불이나 하고 목탁이나 친다고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형상의 부처님과 형상인 자기가 둘이 아닌 줄 아는 스님이라야 목탁을 한 번만 쳐도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 따로 있고 스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이런다면 목탁을 천만 번을 쳐도 천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無)의 세계의 뜻을 알려면…

문 이 세상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뜻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연화장불(蓮華藏佛)' 이러면 아주 최고의 한울을 꿰들어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인이라는 뜻도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하계에 또 더 큰 은하계도 있고 또 더 큰 은하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소속된 은하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은하계 속에 있는 우리 생명력들은 사분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질적한 데서 사는 거나 물에서 사는 거를 한 부분으로 치고, 또 나무들 풀들을 한 부분으로 치고, 날아다니는 거 또 땅을 딛고 다니는 거, 이렇게 네 분류 속에서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질적한 데서 낳는 거, 화(化)해서 낳는 네 가지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 소속되어 있는 생명이 한데 합쳐진 마음, 즉 공존하는 그 주장자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름해서 사왕천(四王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지, 총 합해서 지도를 하는 자가 사왕천이라고 이름해서 붙인 겁니다. 이름해서 붙였다고 그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갈 수 있고 광력이나, 전력, 자력, 여러 가지 힘이 서로 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난다면 원심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원심력을 얻는다면 그 원심력은 어떻게 해서 원심력이 될까? 그리고 사무사유(四無四有)라는 그 뜻은 뭐냐? 죽은 사람들의 마음, 산 사람들의 마음이 둘이 아닌 그런 뜻을 가지고 사무사유 한데 합쳐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마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無)의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영령들, 그 처절한 영령의 참혹한 일들, 이름 해서 부를 수 없는 일들, 또 산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혹하고 처절한 영령들, 즉 산 사람한테 악이면 악, 선이면 선 그렇게 침입을 해서 인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고, 팔자 운명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이름이 속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팔자 속 운명 속 업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만이 사왕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왕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얻는 것은 악이나 선이나 다 놓는 것뿐인데 여러분은 "나는 놓을 수 없다." "어렵다." 이럽니다. 그러면 '왜 어려우냐?' 고 나는 그러죠. 그게 아주 아리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렵다고들 그러지만 나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스럽습니다. 지금도 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오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만나고, 스스로 교차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여러분 자유자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끄달리지 말고 모든 것이 바로 내 근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전부 여러분의 한마음이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즉 말하자면 오고 감이 없는 빛보다 더 빠른 누진통(漏盡通)으로 인해서 천체무전통신기처럼 광력이나 전력에 종합된 그 에너지가 바로 저 은하계로 통하게 됩니다. 은하계의 별들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바로 직속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無)의 세계의 한마음의 뜻을 알려면 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상봉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안테나는 근본의 전체 통신을 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심안이 밝아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고 감도 없는 육신통, 이것이 천백(千百)으로 화(化)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구,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꼭 후회가 들어가고 반성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데는, 정말 나를 깨닫는 그 길을 택하려면 후회도 반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없는 거다' 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근본 주인공 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직속으로 같이 상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 각각 논다면 이거는 정말이지 여러분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했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잘못됐어도 그것은 잘못되게 한 장본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되놓는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정돈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참 행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행선(行禪)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왜 잘 써야 하느냐? 여러분이 한 번 잘못 쓰면 이 몸뚱이 속에 업식으로 뭉쳐집니다. 저지른 대로 업식이 돼서 내 몸뚱이에 뭉쳐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잘못되는 것도 업식으로 뭉쳐져 있는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걸 놔라, 맡겨 놔라.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녹일 수밖엔 없다.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는 없거든.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이 재밌게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있는데 시커먼 게 거기들 죽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눈이 멀어서 못 봐. 잠시 잠깐 웃고 즐길 거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에 그 업식으로 인해서, 업식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찰나찰나 닥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바깥에서 오는 거, 안에서 오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음을 잘 쓰고 사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면에 생명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생명체들이, 의식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한 부분만 파워가 일어나도 지금 그 집합소는 무너져요. 이게 집합소거든요, 나의 집합소!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이끌어 가는 선장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과거로부터 생긴 건데 그 업식들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번뇌다. 의식들이 모두 마구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못 되지요. 그 악업 선업의 업식들이 없었더라면 내 영혼이 정자 난자를 빌려서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빠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좋아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죠. 알고 보면 그렇게 묘한 법입니다. 나쁜 것을 습관적으로 나쁘다고만 하지 않는 것이 넓은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복이 아닌지요

문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는 거나 법당에서 부처와 보살에게 정성을 들여서 복을 바라는 거나 똑같은 기복이 아닌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요?

답 아주 간편하게 나무로 비유를 하죠. 나무들을 보면 모습은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지만 뿌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 나무들의 뿌리가 말입니다. 꽃나무든 버드나무든 소나무든 간에 각 나무는 바로 자기 뿌리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없으면 잎새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역시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생명의 근본, 주인공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고 움죽거리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떻게 믿느냐 하면 저 형상을 믿고 말입니다, '형상을 믿고'라는 말은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상대를 믿어서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마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공경하고 스님네들한테 옷을 해 주고 밥을 해 주고 절을 지어 줬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복이라고 그러느냐? 내 나무는 내 뿌리하고 정맥 동맥이 상통하듯 그렇게 돌아갑니다. 뿌리와 나무가 위에서는 공기, 태양,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아래에서는 땅의 지기와 철분과 황분과 수분 모두를 흡수해서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하는 겁니다. 한쪽만 있어 가지고는 다른 한쪽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게 물질세계의 한쪽만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물질세계 50%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신세계 50%가 부족하죠. 즉 말하자면 사람이 동맥이 있는데 정맥이 없다거나 정맥은 있는데 동맥이 없다거나 이런다면 아예 사람 구실을 못하죠. 그렇듯이 내가 내 뿌리를 믿어야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뿌리를 믿지 않고 내 나무가 울창한 딴 나무를 보고 '아이구! 저 나무! 저 나무가 저렇게 큰데 나에게 에너지를 좀 주었으면…. 나를 잘되게 했으면….'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그 나무에서 이 나무로, 이 나무 뿌리로 올 수가 없거든요. 이 나무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또 딴 나무 뿌리가 이쪽 나무를 도와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이웃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먹고 싶어하면 조금 줄지언정, 즉 복은 조금 있을지언정 공덕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뜻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몸을 가지고 한 철 나는 건데 그 한 철 동안에 어떻게 해야 옳으냐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복으로 하는 건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복으로 한다면 주변 동네에서 쌀이나 몇 됫박 얻어먹을 뿐이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무는 내 뿌리를 믿고 내 뿌리만이, 내 주인공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모든 식구를 다 밝게 살게 할 수 있다,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불이 켜져서 밝게 살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 나빠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 좋아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 진리입니다!
>
> 나쁜 것을 습관적으로
> 나쁘다고만 하지 않는 것이
> 넓은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거룩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 세계를 장식하는 또 하나의 명서 출간

우주의 진면목이다 우주적 신불교의 바로 그것이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과 불과를 증득한 수 많은 붓다님들은 유무를 초월하여 무아 속 절대 세계에 빛의 존재로 여여히 계시며, 사후세계와 지옥 · 극락 그리고 육도윤회는 존재한다.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314쪽 / 15,000원

- 자재만현 큰스님께서 30여 년간의 치열한 염불수행을 통해서 얻은 붓다의 경지를 21세기 최고의 초신성으로 써내려간 미증유의 성작(聖作)
- 21세기 전세계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우주역사에 길이 남을 불교 수행 및 사상의 기념비적 금자탑이며 전대미문의 성서(聖書) 영문판 출판예정

거룩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 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536쪽 / 15,000원

- 영산불교사상연구소에서 동서고금 종교,명상,철학 서적 약 1천 여 권을 읽고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열독하면서 법열(法悅)속에서 초지성으로 써내려간 불후의 명작(名作)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



512쪽 / 15,000원

- 탁월한 식견과 지견(智見)을 겸비한 6인의 대석학들이 수놓은 인류 최고의 지적 통찰이 담긴 전대미문의 역작(力作)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출간한 세 권의 서적에 대한 총평

- 독자제현들이 이 세 권의 서적을 수 차례 정독한다면 눈부시게 빛나는 거룩한 부처님의 세계를 마음 깊이 감득하게 될 것입니다.
- 찬란하고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시종일관 법열 속에 머물도록 할 것입니다.
- 이 세 권의 서적은 21세기 최고의 종교인 불교의 그랜드 비전을 응시할 수 있는 광대한 명안(明眼)을 구족하게 해줍니다.
- 인류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종교로서 불교가 갖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전세계 모든 영성세계와 종교명상서적이 지향해야할 총체적 가르침의 시금석(Touchstone)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입문의 : 춘천 현지사 본사 Tel 033)243-1787,1795 / Fax 033)243-4371 부산 현지사 분원 Tel 051)554-5150, Fax 051)556-5150 / 메일 hyunjigung@hanmail.net



불자 세상보기

이 강 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오늘도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탄다

정말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닌가 보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지난 3일 서대문구 가좌역 구내 수색방면 철로 45미터 구간의 지반이 붕괴됐다. 이번에 발생한 철로지반 붕괴사고 역시 한마디로 안전불감증 사고로 확인되고 있어 충격을 준다.

또한 시공사와 철도공사의 어이없는 대응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음을 보여준다. 가관인 것은 가좌역 지하역사 공사담당 건설회사들은 철로지반의 붕괴 위험을 확인한 뒤에도 공사를 강행했고 철도당국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더욱 놀라운 일은 지반 붕괴 4분 전까지도 열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까지만 해도 문산에서 서울방면으로 3대가 지나갔고, 서울에서 문산 쪽으로 1대가 지나갔다.

2대는 서울역으로 승객을 태우러 가는 빈 열차였지만 나머지 2대는 300여명의 승객을 태운 통근열차였다. 서울에서 문산으로 간 통근열차는 사고발생 불과 7분전에 사고 현장을 지나간 황당한 일이 백주에 벌어졌다.

경찰도 이번 사고가 공사장 철기둥을 보강하며 옹벽을 지지해 주는 강철선이 끊겨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부실설계 등 다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좌역 인근 주민들은 일주일 전부터 이유 없이 상가건물 유리창이 깨졌고 가게마다 바닥에 금이 가는 등 눈에 띄는 붕괴조짐이 있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일대 지반이 낮아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이상징후에 대한 민원을 제기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사고 직전 수색역에서 출발한 회송열차를 급정거 되었던 점이다. 10명의 작업인부들이 사고 현장주변을 지키다 열차 운행을 온몸으로 막았다고 한다. 열차를 세우고 대피하자마자 붕괴가 시작된 어이없는 인재였다.

한번 뒤돌아 보자. 이번 사고가 뭐든 하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 성과주의와 소통부재에서 온 것이 아닌지. 빨리 빨리와 대충 그리고 적당주의와 이기심이 혼합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사회는 점차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간다. 우리 의식 또한 그기에 맞춰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연초에 서울복지재단이 실시한 세계 10대 도시 행복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 도시 시민 중 서울시민이 생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린다 해도 삶의 질이 어디 빵뿐이겠는가. 선진국이란 거창한 구호의 쓸쓸한 이면이다. 이제라도 공공의식과 책임감 있는 의식혁명이 요구된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우린 영원히 겉만 화려하지 속빈 강정의 모습으로 글로벌시대에 낙오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불자의 눈

여름 수련회, 가족이 함께

일상은 늘 고통스럽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은 즐겁고 행복하기 보다는 바쁘고 권태롭고 따분하고 짜증나는 시간이 더 많다. 일상을 움직이는 것이 중생심이라서 그렇다. 중생심이란 바로 갈망하는 마음이다.

중생심이 지배하는 일상이 평온하고 안락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행복하기 위해 살면서도 늘 불행의 씨앗을 품고 사는 것이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온하고 안락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중생심을 버리면 된다. 그러나 과연 간단한가? 옛 선사들은 "망상을 버리려고 애쓰는 그 마음도 망상"이라고 했다. 중생심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마저 중생심이라면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듯 일상의 고통을 떨쳐 버리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꾸려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순간순간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중생심에 빠지지 않는다. 탐심으로 들끓는 마음을 제어하고 평상심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기른 사람은 탐욕이라는 수렁에 빠지지 않고 평상심으로 살 수 있다.

문제는 부단한 자기 수행이다. 자기의 삶을 세속적으로 이끄느냐 탈속적으로 이끄느냐에 대한 신념과 정진이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다. 탐욕과 갈망에 물들지 않는 평상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 '마음공부'를 지어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그 길은 처음에 제대로 안내 받아야 하고 그 다음은 스스로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한다.

전국의 사찰에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된다. 템플스테이 문화는 이미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찰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사찰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깨침의 삶을 이끄는 프로그램들은 중생심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탈속적인 삶의 기쁨을 맛보여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올 여름에는 사찰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자.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 길인가를 진지하게 돌이켜 보자.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주변 사람들과 갖가지 상황들을 점검해 보자. 과연 좋은 인연을 맺으며 선근을 기르는 삶인가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해 보자. 자기를 철저하게 볼 때 주변 사람과 모든 상황들도 명료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한 시간이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 변화의 힘은 행복 에너지로 전화되어 날마다 즐겁고 평온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무엇보다 올 여름 템플스테이는 가족과 함께 참가할 것을 권하는 바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 자신에게는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공부에 지친 자녀와 가사에 지친 주부 직장 일에 지친 가장…. 따지고 보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친 일상에 허덕이고 있다.

올 여름 온 가족이 사찰을 찾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지친 삶을 살고 있나?' 진지하게 질문해 보라.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그 답이야말로 자성을 깨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15.학교 내 종교차별 사라져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사학 교직원 특정 종교인 채용 관행 국민 기본권 침해"

평등한 사회는 인류가 꿈꾸는 세상이다.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에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 못 살아도 다 같이 못살고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들면 참을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서로간의 불신 때문에 세상은 평온할 수가 없다. 무엇이 '차별'인가. 간단하다.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즉, '차이=불편 또는 불이익'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종, 지역, 신분, 성, 장애, 외모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종교로 인한 차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등권'이 공허한 법조문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은 왜일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능력과 무관하게 종교 등을 이유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개신교의 독선으로 인해 타종교인들과 무종교인들이 크고 작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독교인들은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다종교 국가 중 한국만큼 비기독교인으로 사는 데 불편을 느끼는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우선 '교육현장'이라는 특수한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차별을 생각해 보자. 아직 종교사학에서의 특정종교 강요는 여전하고 더욱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다.



숭실대에 채플강요 학칙개선을 건의하는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

그나마 강의석군의 단식으로 얻어낸 개선 결과라면 대광고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차별 시정권고를 따라 '학생회 임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 모든 국민이 환영했던 참으로 다행스런 결정이었다. 일부 학교에서 선교부장 등의 특별한 간부직을 두는 곳이 있어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차별규정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교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은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종교사학들이 교원 임용 시 자격조건을 특정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자기 문제나 국민의 권리 침해로 생각해 보지 않은 국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설사 뭔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 해도 '사립학교'라는 불확실한 개념 때문에 '그 사람들 원래 그래?' 하고 애써 잊어버리려 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저 관행으로 넘겨버리기엔 대표적인 종교차별이자 인권침해로 위헌 논란이 제기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수십 년 동안 사회문제화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의아할 뿐이다. 공개적으로 특정종교 자격조건을 내걸지는 않는다 해도, 일부 종교사학은 '인사위 심의'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는 등 공개전형 절차 자체를 밟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비공개로 교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피하면서 특정종교인만을 편법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올해 초 기독교 재단인 동두천 ㅂ여고가 정교사 두 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필기시험으로 전공과목 대신 교리시험을 치렀다'는 당시 언론보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종교사학의 교사 채용 과정에 불법과 탈법이 도를 넘은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는가를 검토해 보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을 살펴보자.

2006년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립 중학교 전체 예산 중 정부보조금, 학생부담금, 법인전입금, 기타 기부금 등의 비율은 각각 81.7%, 15.7%, 1.4%, 1.2%로 나타났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50.6%, 45.8%, 1.9%, 1.7%이다. 재단전입금은 불과 2%도 채 안 되며, 특히 교사의 인건비는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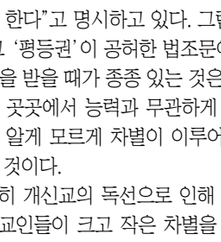
무늬만 사립학교인 셈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종교사학들이 특정종교인만을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 또 감독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왜 통제하지 않고 묵인 · 방조하고 있는지, 국고지원을 통한 특정종교 우대로 위헌적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비신자들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면서까지 국가예산으로 특정종교인들에게만 '일자리'를 주고 '종교교육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다니…. 불자들도 스스로는 취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의 취업과 선교에 세금을 보태고 있는 꼴 아닌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거부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교육당국과 종교사학은 무슨 권리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특정종교를 특별대우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바로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사회통합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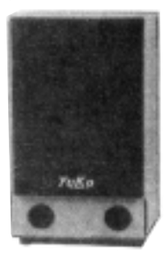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8월 안으로 법당 앰프시설을 의뢰하시는 스님께는 『고성능 무선마이크1세트』를 무료 보시 합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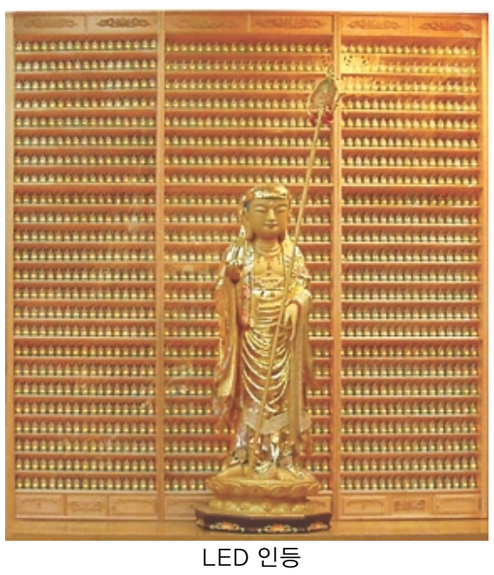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구위패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 사찰명 인쇄시 30일 전에 미리 전화신청 바랍니다.



팔각봉축접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종 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웰빙 가구의 대명사 - 다심마루

茶心마루 공장직판 도매가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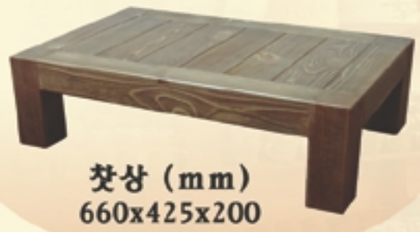
다 심

자연의 향기와 숨결로 심신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소나무를 그대로 사용하여
쓰면 쓸수록 품격을 더해가는 좌탁입니다.



※ 겨울에 수축하고 여름에 팽창하는
살아 숨쉬는 소나무 좌탁입니다.
(무늬목을 입힌 좌탁은 수축 팽창을 하지 않습니다.)


찻상 (mm)
660x425x200

구분	크 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직선좌탁	1200x600x300(小)	400,000	190,000
	1300x770x300(中)	500,000	210,000
	1500x770x300(大)	600,000	260,000
	1800x770x300(특대)	700,000	310,000
찻상	660x425x200	160,000	80,000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 ▶ 소재 : 우리나라 소나무 사용
- ▶ 사용 :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
  (예) 차탁, 거실의 좌탁,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제사상, 손님상 등
- ▶ 사용법 :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골동을 만들어가는 과정 - 대물림이 가능)

※ 중국산과 무늬목 좌탁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배송하여 드립니다.

주문처 080-300-9928
농협 177483-51-071977 (예금주:천소현)